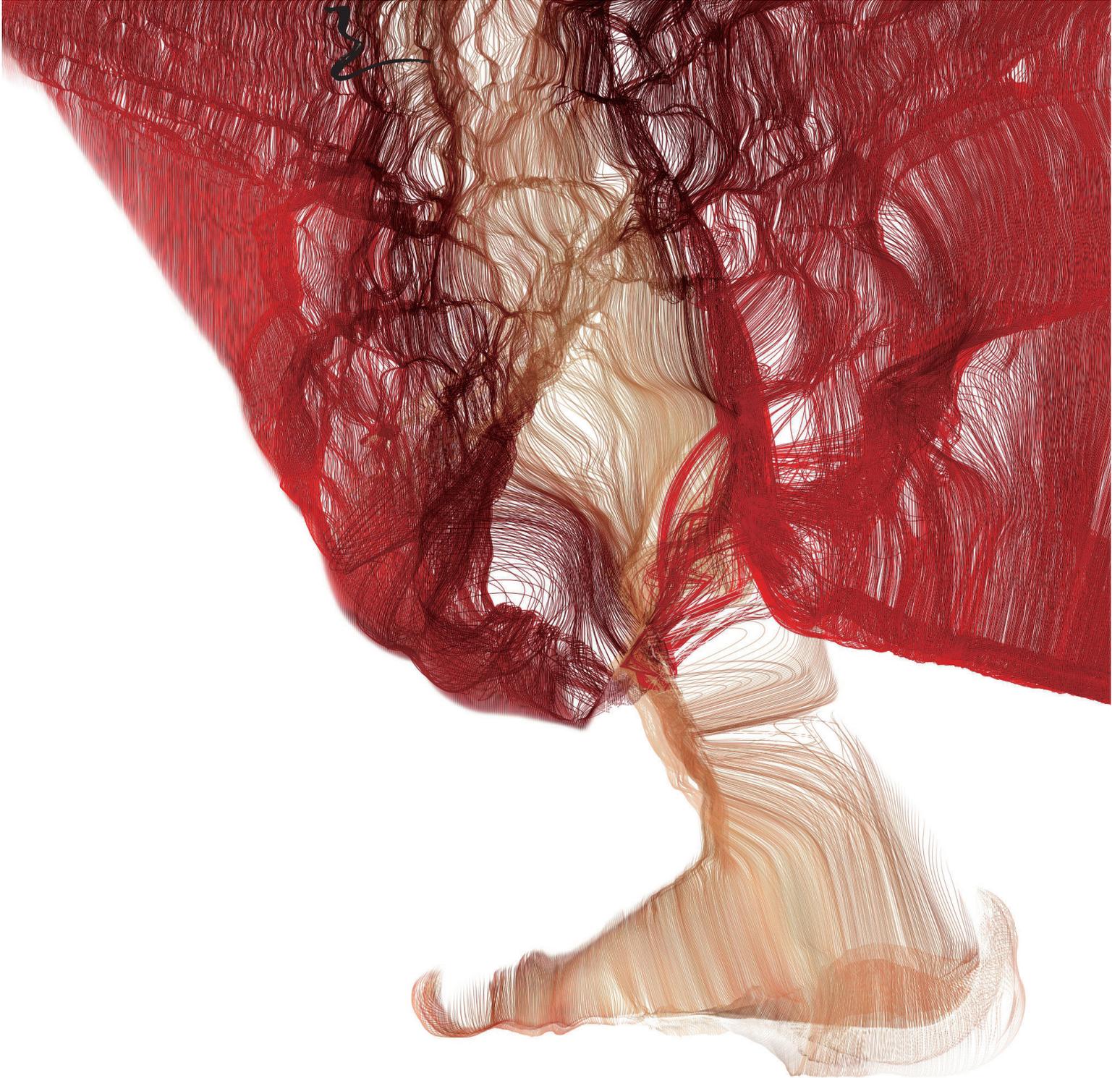


12. 2017  
2월 21일 + 0  
1월 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

2017





1월의 테마토크

정치의 겨울, 풍자의 봄

광장의 집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자 의무를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다. 그곳에는 정치적 의견과 사회 현안에 대한 구호가 있고 이는 종종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겨 표현되기도 한다. 현실을 날카로우면서도 재치있게 꼬집어낸 노래, 퍼포먼스, 그림, 깃발의 메시지는 많은 시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문화+서울] 2017년 첫 번째 테마토크에서는 한국 집회의 역사를 새로 쓴 이번 촛불집회의 의미를 문화적인 면에서 살피며 특히 '풍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06



사람과 사람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아티스트 전제덕에 대해 '한국의 독보적인'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라는 수식어는 전혀 과하지 않다. 교육용 또는 포크 뮤지션이 간주에 이용하는 보조 악기라고 흔히 생각하던 하모니카를 음악의 중심에 둔 그는 서정적인 곡과 연주로 대중의 호응과 음악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세 장의 정규앨범을 비롯해 대중음악 뮤지션, 다양한 연주자와의 협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 11월에는 하모니카 제작사 호너(Hohner)가 선정하는 '호너 아티스트'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다. 침체된 한국 음악 신(scene)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뮤지션 전제덕을 만났다.



진실 혹은 대담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문화예술 활동에서 '지역'은 이미 중요한 키워드다. 불특정 다수 대중을 향해 거시적인 관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내 이웃과 함께 내가 사는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전환을 모색하고 활동하는 문화기획자가 늘고 있다. 2017년 첫 번째 [문화+서울]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그러한 변화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쟁점 1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쟁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라이브클럽협동조합'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위원장'... 이름조차 생소한 단체들이 뭉쳐 2016년 11월 서울 마포구로부터 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올해 안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 방지 대책을 추가해 보완하겠다"는 것. 문화예술인의 터전처럼 여겨지는 '홍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contents

- 02 발행인의 말 | 주철환의 더다이즘, 네 번째
- 04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양민하

## 테마 토크 정치의 거울, 풍자의 봄

- 08 풍자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 혁명 | 위기일수록 비평 정신이 필요하다
- 10 검열과 정치 탄압이 키운 풍자 예술 | 배설을 넘어 저항으로, 풍자의 날을 갈다
- 14 일곱 번째 집회 현장 스케치 | 광장, 정치의 거울을 건디는 풍경
- 18 '차벽을 꽃벽으로' 프로젝트 기획자 이강훈 | 불통의 차벽에 꽃으로 저항하다

## 사람과 사람

- 22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 살아 있는 지금, 나만의 것
- 28 정형화되지 않은 도전의 장,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 | 한국형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실험

- 32 진실 혹은 대담 |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 38 예술가의 밥그릇 | 로봇 공연 기획자 허창용
- 40 서울 할나 | 박현수 시인의 시 <세한도(歲寒圖)> 중에서

## 이슈&토픽

- 42 쟁점 1 | 현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쟁
- 44 쟁점 2 | 2017년부터 주요 예매처 6곳 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반영 시작
- 46 화제 |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성황리 개최

-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 공간, 공감

- 50 공간 1 |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展
- 52 공간 2 | 함께 살아가는 장터 '상생장'
- 54 공감 1 | 뮤지컬 <보디가드>와 <더 언더독>
- 56 공감 2 | 신년을 여는 젊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전시
- 58 공감 3 | 책 <지위경쟁사회>와 <대리사회>

##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 62 메모리 인 서울 |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진 직업들
- 64 서울 단상 | 영상 작가 라야의 서울 여행기
- 66 이명석의 썰(說) | 한국의 '걸 크러시'와 여성주의
- 68 장운선의 음악 정원으로 | 오케스트라로부터 배운다
- 70 서울 건축 읽기 | '용도' 강박을 버리면 드러나는 공간의 가능성

- 72 연극 10분 희곡 릴레이 | 안소량 작 <아포토시스와 총>

## 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4 1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인문·사회·예술·문화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gomgom@sfac.or.kr  
이아림 ahrim@on-it.kr  
객원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 오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주철환의 더다이즘, 네 번째

## 내부자들과 기부자들

데뷔 25년 만에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죠. 그는 영화 <내부자들>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현실이 <내부자들>을 이겨버린 상황"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절망적으로 촛불을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는 분명히 저것이 희망의 촛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기에게 혜택을 준 사람 명단을 나열하느라 생방송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인 시상식에서 이런 목직 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건 25년 연기생활이 선물한 내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두가 한마음'이라는 부분에 특별히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국민대통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기에 걸맞은 수상 소감이죠. 전인권 씨는 <걱정 말아요 그대>로 국민을 위로했고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는 <비밀은 없어>라고 일갈했습니다. 양희은 씨는 광장의 수많은 촛불과 <아침이슬>을 합창했습니다. '고난의 유익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되지 않으려면 '시대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중을 '개, 돼지'로 묘사한 영화 <내부자들>의 포스터에는 이런 대사가 써여 있습니다. "저 진짜 조직을 위해 개처럼 살았습니다." 불현듯 의문이 듭니다. 가족과 이웃, 조국과 인류를 위해 살지 않고 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위해 살았을까요? 더구나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마땅한데 왜 개처럼 살았을까요? 의리라는 말로 포장된 조직의 논리 앞에서 진리와 도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최근의 영화포스터를 눈여겨보면 일종의 목시록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정우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터널>의 포스터엔 '나 아직 살아 있는데', 재난영화 <부산행>에는 '끝까지 살아남아라'라는 조언이 적혀 있습니다. <베테랑>이란 영화의 포스터에는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는 경고가 뚜렷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예측한 듯한 무서운(?) 지침도 있습니다. 영화 <곡성>의 포스터가 그렇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대한민국의 부자들도 수난을 겪는 중입니다. 부자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내부자들과 기부자들입니다. 전자는 '끼리끼리' 노는 게 특징입니다. 선행보다는 악행을 일삼으며 불나방처럼 놉니다. 이익 앞에서 뭉치고 이익이 사라지면 발뺌합니다.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세력입니다. 반면에 기부자들은 어둠을 내몰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룹입니다. 빛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그들은 곱셈보다는 나눗셈을 잘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주는 기업에 고마움을 전하는 '2016 서울메세나 감사의 밤' 주제는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당'은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당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겁내며 돈을 통장에 쌓아두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요?

'결'의 시대가 가고 '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결'보다는 그 사람의 '결'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들, 열정은 넘치는데 주머니가 빈 청년들을 곁에 많이 둔 사람은 국민을 속일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주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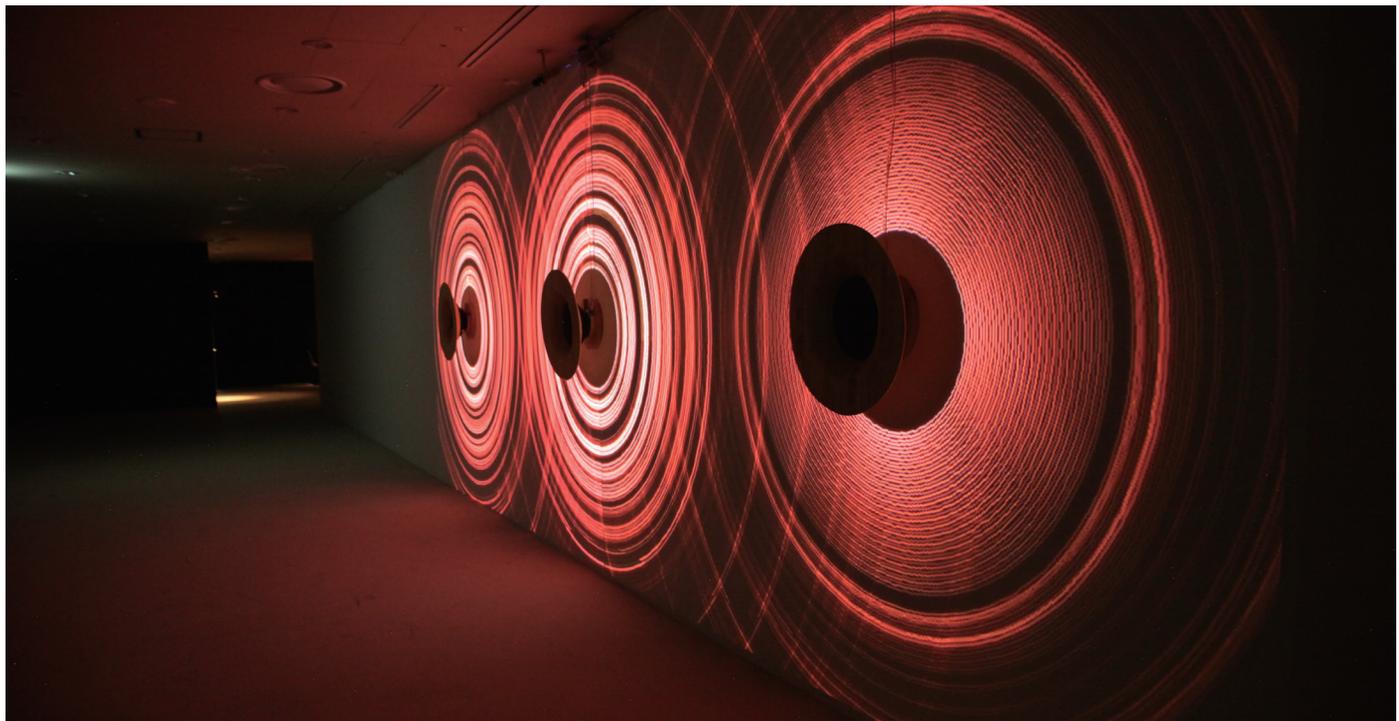




Make  
Difference  
with the Art

Table  
No. 10

2016 서울메세나후원의 밤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  
필레오 중창단과 주철환 대표.



〈목상1110~#2〉

Wood, speaker, computer, projector | 600×800×330cm

## 이달의 표지 작가 양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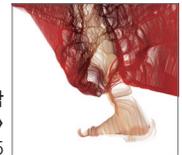
양민하는 공진화(共進化)\*와 기술, 종교 그리고 인간 본성까지 다양한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기계에 대한 탐구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으로 확장되었고, 종교와 실재(實在) 그리고 허상에 대한 소고를 거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품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A Garden〉에서 그는 기계문명과 인류의 공진화에 대해 고민했고, 〈목상〉 시리즈는 종교가 지역화하는 과정 중에 이미 그곳에 토착화한 종교의 유사한 상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작품을 시작했다. 표지작인 〈뛰는 여인들〉은 전형적인 패티시에 대한 시선(영상)을 가장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알고리즘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다. 영상의 색 수치를 이용해 계산한 유체 역학 필드를 기초로 2차원적인 이미지의 변형을 만들어내며, 표지의 작품은 그중 4명의 여인이 적색 옷을 입고 뛰는 장면을 기록해 만든 것의 일부다. 최근 양민하는 〈해체된 사유와 나열된 언어〉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 작업은 기계가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사유(思惟)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대표적인 과학철학자들과 미디어 저술가들의 저서 9권을 학습시키고, 그들의 책에서 추출된 키워드들을 이용해 기계가 기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논하는지 보여준다. 불

완전하고 불확정적이지만 아무도 이것이 사유인지 혹은 언어의 나열에 불과한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양민하의 작품은 은닉과 단순화한 조형, 수학적 계산 그리고 인간의 개입으로 완성된다. 그는 기계와 공진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놀이적 상상을 거쳐 수학적 정교함과 복합적인 알고리즘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조형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sup>한글</sup>

\* 한 생물 집단이 진화할 때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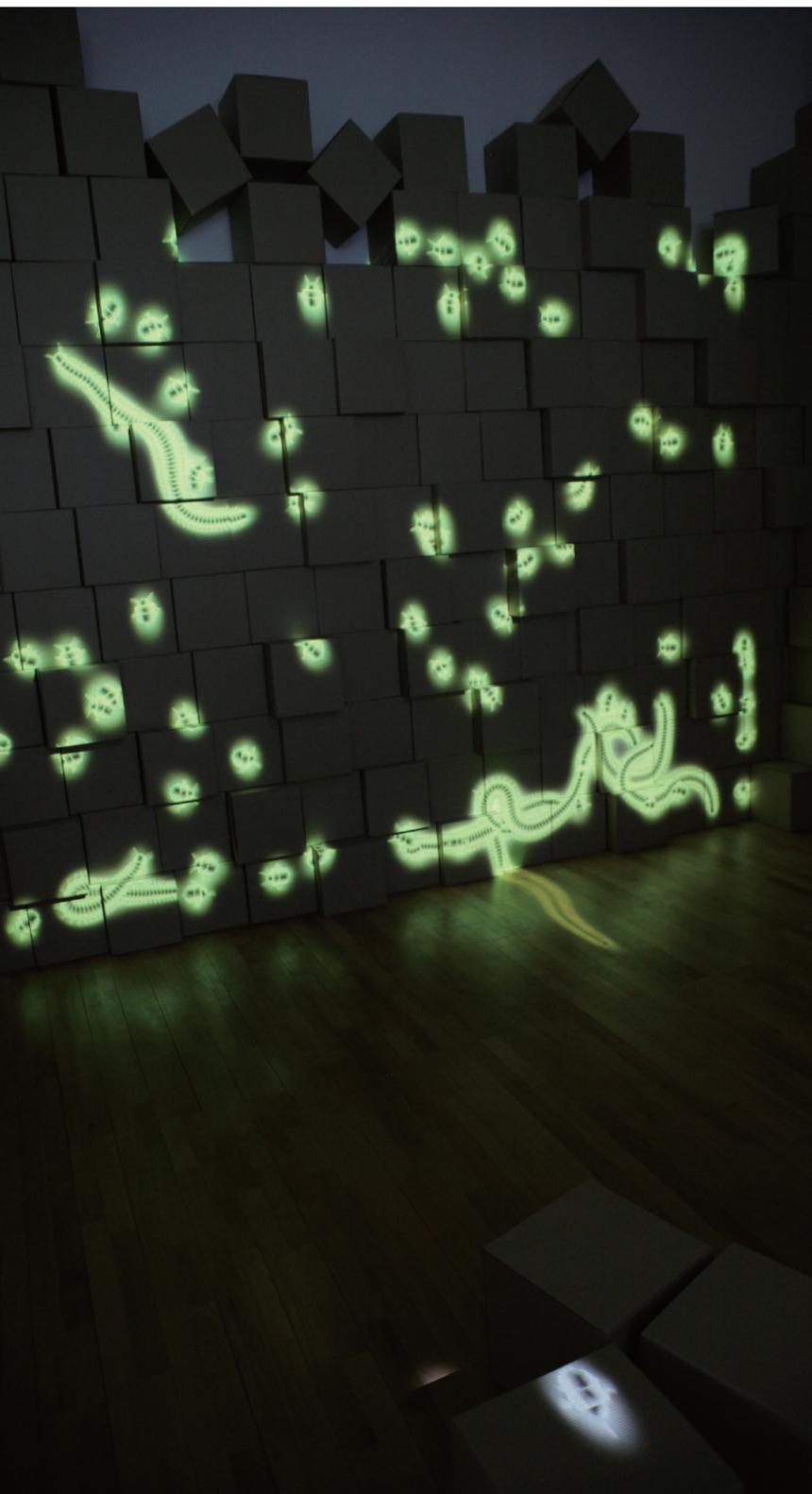
표지작  
〈뛰는 여인들〉  
채널 영상 | 5'00" | 2015

### 양민하

2016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서울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예디자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영상디자인전공 교수 (2006~2008)를 거쳐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글 양민하



〈Ordinary conversation about visual illusion created by algorithms〉  
 computer, projector, HW interface | 400×500×300cm



〈엇갈린 걸\_게임〉



전국 비둘기 연합

# 정치의 겨울, 풍자의 봄

광장의 집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다. 그곳에는 정치적 의견 표출과 사회 현안에 대한 구호가 있고 이는 종종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겨 표현되기도 한다. 폭력을 지양하고 현실을 날카로우면서도 재치 있게 꼬집어낸 노래, 퍼포먼스, 그림, 깃발의 메시지는 많은 시민이 집회를 즐기며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화제로 떠오른 것은 많은 시민이 손수 제작한 깃발과 퍼포먼스다. 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의 창작욕구의 분수령이 된 듯, 이명박 정부부터 심심치 않게 진행된 대중매체의 압박음, 국가기관의 검열 및 그로 인한 자기검열의 심화와 비교하면 지금의 광장 풍경은 '풍자의 귀환'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문화+서울] 2017년 첫 번째 테마토크에서는 한국 집회의 역사를 새로 쓴 이번 촛불집회의 의미를 문화적인 면에서 살핀다. 정치적 의견표출의 문화예술적인 방식과 특히 활발하게 일어난 '풍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깨알같은 재치가 70년대에 멈췄던 정치의 시계를 움직였다. 이를 동력 삼아 우리는 봄을 향해 간다.



풍자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력 혁명

# 위기일수록 비평 정신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날은 궁지(矜持)의 날이다. 시인 김수영이 쓴 어느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로(疲勞)도 내가 만드는 것 / 궁지도 내가 만드는 것” (<궁지의 날>, 1955. 2)이라고 할 때, 12월 9일은 불인(不忍)한 권력에 맞서 싸워 우리 모두가 승리한 ‘궁지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저 4·19가 그랬고, 6·10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한 '11월 혁명'은 아직 진행형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9일의 결과와 11월 혁명의 모든 성격을 규정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차에 이른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개·돼지'가 아니라 각성한 민중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위대한 시민혁명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옳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형성된 소위 '탄핵 정국'은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언명한 바 있는 '공위기(空位期, interregnum)'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 민중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공위기라는 개념은 한 국왕이 사망하고 나서 후계자가 즉위하기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위기관 낚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공위기에는 매우 다양한 병적인 징후들이 출현한다"라고 적어놓은 단상에서 비롯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적인 징후들'이란 파시즘적 반동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임은 말할 나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은 광장의 열기에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이 사는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의 현장은 광화문광장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일터에서, 삶터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촛불시위에서 확인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촛불시위는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싸움의 과정이었다.

광화문 텐트촌에서 농성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자발적 시민들이 연출한 무수한 비폭력 직접행동에서 그런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모두가 직접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었음을 잘 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라는 책을 쓴 비폭력 직접행동 연구자인 진 샤프(Gene Sharp)는 말한다. "독재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고, 민중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예감하는 상상력의 혁명

특히 촛불시위에서 확인한 풍자(satire)의 미학은 '예시적 정치'를 예감하게 하는 상상력 혁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예술가-시민, 혹은 시민-예술가들이 스스로 연출하고 함께 즐기는 풍자의 양식은 자발적 불복종, 비협조, 비폭력의 저항 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경험을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작용했다.

대의(代議)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넘어, 새로운 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을 예감하게 하는 상상력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국왕 앞에 선 민중의 대표를 의미하는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넘어 내가 사는 삶터와 일터에서 어떻게 민주적 자기 조직화의 모델을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시적 사유와 직접적 실천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리라.

다른 삶이 가능하고,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책읽기 모임 같은 동아리를 만들고 텃밭을 함께 일구는 일 같은 다양한 '접촉면'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위기' 시대의 풍자는 일종의 호전적인 아이러니(irony)라는 점에 대해 더 숙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가의 실체란 결국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고, 독재권력의 본질이란 우스꽝스러운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적으로 폭로할 필요가 있다. 조짐은 좋다.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해 약자를 혐오하는 풍자가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위기를 의미하는 크라이시스(crisis)는 그리스어 크리시스(krisis)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크리틱(critic, 비평)이라는 말도 바로 '크리시스'에서 파생되었다. 크리틱이란 본래 위기 상황과 깊은 친연성을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크리틱 정신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금지'를 잃지 말자. 금지(矜持)라는 한자어는 내가 창(矛)을 지금(今) 지니고(持) 있다는 의미다. '11월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술가-시민이며, 시민-예술가여, 우리 손에서 풍자라는 '창'을 아직은 놓지 말자. '나'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글  
고영직  
문학평론가

그림  
손민정



검열과 정치 탄압이 키운 풍자 예술

## 배설을 넘어 저항으로, 풍자의 날을 갈다

2016년의 '촛불 정국'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참담한 시기였다. 동시에 '정치 풍자'의 전성시대이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성토하는 촛불집회에선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조롱, 야유, 풍자가 봇물 터진 듯 쏟아졌다. '촛불'로 대변되는 대규모 평화 시위와 축제와도 같았던 집회 분위기, 그 안에서 펼쳐진 촛칠살인의 손팻말과 퍼포먼스는 우리의 수준 높은 정치 감각을 일깨운 '살풀이' 한마당이기도 했다.

시국의 어둠을 타고 불붙는 풍자의 축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퇴진"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 자괴감 들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사과에 대한 '1000만(누적 인원) 촛불'의 분노는 조롱과 야유에만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없애지소" 문구를 등에 붙인 '하야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활보하고 "씹고 뜯어 보자"는 '최순실 후라이드 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 옆을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과 현빈을 코스프레한 시위 참가자가 지나갔다. "하야하그라"라는 구호가 적힌 '한국 고산지 발기부전 연구회' 깃발이 군중 속에 나부꼈다.

촛불시위가 별다른 논란 없이 석 달 가까이 진행된 데는 '저항과 놀이, 정치와 문화의 융합'이라는 집회 문화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헌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 때문에 광장으로 나섰다. 하지만 집회 현장은 문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비장한 분노와 유쾌한 풍자가 한데 어우러져 또 다른 저항의 자양분이 됐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



민의 분노가 패러디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환기됐고 풍자를 통해 정권에 대한 분노라는 공감대가 계속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춧불민심’이 지핀 풍자의 ‘불씨’는 방송가로 옮겨붙었다. MBC <무한도전>을 필두로 KBS2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tvN <SNL코리아8>, jtbc <말하는 대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현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고 있다. 지난 9년여간 거의 고사되다시피 한 정치 풍자 개그가 국회의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고(故) 김형곤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과 최양락의 ‘네로 25시’로 꽃피웠던 정치 풍자 전성기를 떠올리게 했다.

### 춧불세대, ‘집단 풍자’의 새길 열다

‘무늬만 풍자’인 패러디의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순실로 분장한 집주인을 등장시켜 ‘프라도’ 신발과 “신발놀이”를 외친 <SNL코리아>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본질 대신 명품 구두와 선글라스라는 표피적 이미지만 건드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DJ DOC의 <수취인 불명>과 홍성담 화백의 신작 <똥의 탄생>은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에서 정치 풍자가 개인을 넘어 집단적 저항의 무기로 발현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광우병 촛불집회’가 시작이었다. 10대들은 2008년 5월 서울 청계광장에 삼삼오오 모여 촛불과 ‘미친 소, 이명박 너나 쳐드삼’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치켜들었다. 망가진 마우스를 질질 끌고 다니며 “MB OUT”을 외치기도 했다.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서슬 퍼런 정권이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풍자와 재기발랄한 퍼포먼스에 속절없이 권위를 잃어갔다.

MBC <재미있는 라디오>와 tbs <9595쇼>의 박찬혁 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사 풍자는) 권력과 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다수 사람들이 마당놀이처럼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형 정치 풍자 원조는 마당놀이였다. 탈을 쓰고 지배계층의 탐욕과 몰상식을 비판하고, 민초의 흥을 돋우고 애환을 달랬다. 근대 민화나 판소리, 별신굿은 현대의 만평과 풍자화, 판타지 소설로 이어졌다.

1 미국 아티스트 윌리엄 듀크와 브랜든 그리핀이 롤링스톤즈 앨범 재킷에서 착안해 프랑스 파리 '세인트 크리스토퍼스 인 호텔' 내 바 남자 화장실을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한 작품(2015).

2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를 풍자한 'DOPE' 포스터(Jeff Rankin, 2009, 출처: 위키피디아는 미국의 아티스트 세퍼드 페어리가 디자인한 버락 오바마 'HOPE'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이다).

3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풍자의 단골 인물이다(출처: pixabay).



4  
오노르 도미에의  
1831년작  
〈가르강튀아〉.  
5  
팝 아티스트 이하의  
작품 〈국정원〉.  
6  
팝 아티스트 이하의  
작품 〈Shaman  
Korea〉(2016).  
7  
옛날 가수 미미 자매(?)  
를 비선 자매로  
패러디한 손민정  
작가의 작품.

**권력 비판의 무기, 풍자의 오랜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풍자의 칼끝은 항상 권력자를 향했다. 풍자(satire)는 ‘갖가지 과일이 가득 담긴 접시’라는 뜻의 라틴어 ‘lanx satura’에서 유래한다. ‘문학이나 삽화를 통해 현실의 부조리나 모순을 비웃는 행위’를 말한다. 풍자를 일컫는 또 다른 단어 ‘sarcasm’은 ‘개처럼 신랄하게 살을 물어뜯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sarx’에서 왔다. 중국 〈시경〉에 나오는 풍자(諷刺)는 하(下)의 ‘바람 같은 말’(諷)로 상(上)의 폐부를 ‘찌르는’(刺) 행위라는 대목에서 따왔다.

서구 풍자의 시초는 “나는 왕이다, 너는 누구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물음에 “나는 개다. 사악한 이들을 물어뜯는 개”라고 맞받아친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설이 유력하다. 풍자는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허무맹랑한 기사도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비튼 미겔 데 세르반테스(1547~1616)의 〈돈키호테〉, 프랑스 신분제를 비판한 극작가 보르마세(1732~1799)의 〈피가로의 결혼〉은 한결같이 당대 최고 지배층의 탐욕과 위선, 폭력을 겨냥했다.

프랑스 화가 오노레 도미에(1808~1879)는 루이 필리프 1세를 탐욕스러운 괴물로 묘사한 〈가르강튀아〉(1831)를 통해 1848년 프랑스 혁명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태생의 다다이스트 존 하트필드(1891~1968)는 1920년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잔혹성을 풍자한 포토몽타주 작품을 잇따라 발표했다.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



홀(1928~1987)은 1972년작 〈리처드 닉슨〉에서 당시 연임을 노리던 닉슨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악마처럼 묘사한 뒤 “(조지) 맥거번(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다.

**검열, 수감, 회계감사... 정치 탄압을 넘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탓에 풍자가는 늘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도미에는 〈가르강튀아〉를 발표한 뒤 벌금과 수감이 라는 이중고를 겪었고 해당 잡지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워홀 역시 닉슨 대통령의 재임 성공 이후 죽을 때까지 해마다 미 국세청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후에도 자신의 인선 등을 비꼬는 코미디 버라이어티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대





일곱 번째 집회 현장 스케치

## 광장, 정치의 겨울을 건디는 풍경

2016년 12월 10일(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부터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거리는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과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손팻말과 초를 손에 들고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은 한층 더 밝은 느낌이었다. 전날인 9일(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여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 민심의 영향이 컸다. 광장의 공기는 무게를 조금 덜어낸 정도일 뿐 그리 가볍거나 들떠 있지 않았다. 다만 채치 있는 깃발과 각종 패러디 포스터, 손팻말 등이 눈에 띄었고 오후 4시 무렵 청와대를 향해 가는 행진에서는 시국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의 가능성을 엿본 직후의 집회 현장 풍경을 전한다.



2



3



4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일대는 낮부터 불볏다. 이날 오후 4시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됐는데, 이에 앞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개인 혹은 민간단체에서 준비한 이벤트와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호응을 보였다.

1, 2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초 모양의 대형 구조물에 많은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3 최계바라 기획사가 진행한 '민주주의 깃발 만들기'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행렬.



5



6

5, 10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광장 일대에는 영화포스터와 명화, 드라마 등의 패러디물이 다수 등장한다. 이날 경찰이 설치한 차벽 일부는 이러한 풍자물의 좋은 게시판이 되었고 재치있는 패러디 퍼포먼스는 시민의 호응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6

독특한 풍자 퍼포먼스와, 기념사진을 찍는 시민.

7

매주 토요일 저녁 광화문 광장을 밝히는 촛불들(촬영: 최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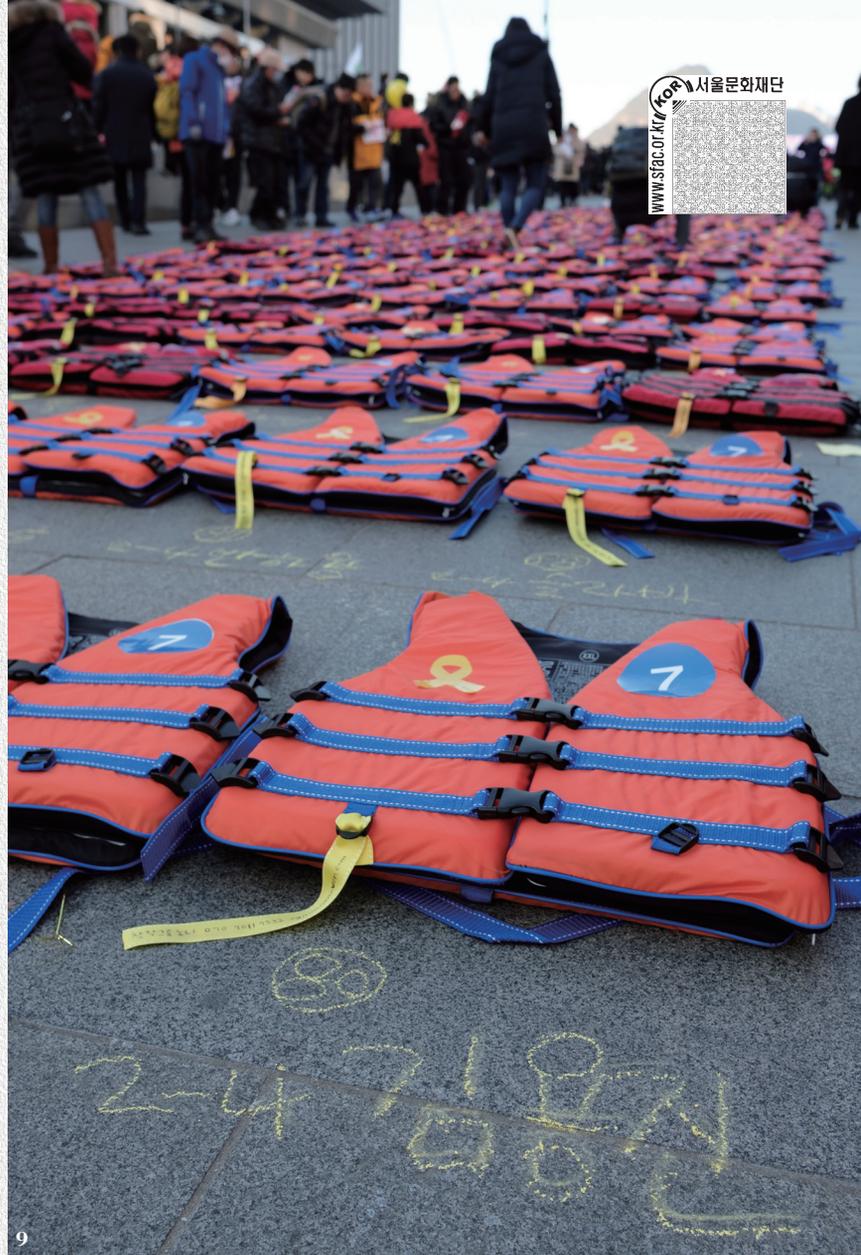
8

집회 현장에서 화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시민이 손수 제작해오는 다양한 깃발들이다. '장수풍뎡이연구회' '열룩말연구회' '전국메탈리스너연맹'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혼자운사람들' 등 재치있는 단체명과 메시지를 드러낸 깃발은, 정치에 대한 체념과 자기검열에 익숙해지려던 시민들 사이에 어떤 훈풍이 불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광장은 민주주의라는 대의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곳으로서 중요하다.

9

이날 광화문광장 바닥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304개의 구멍조각기가 놓였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시민을 숙연하게 했다.

사진 김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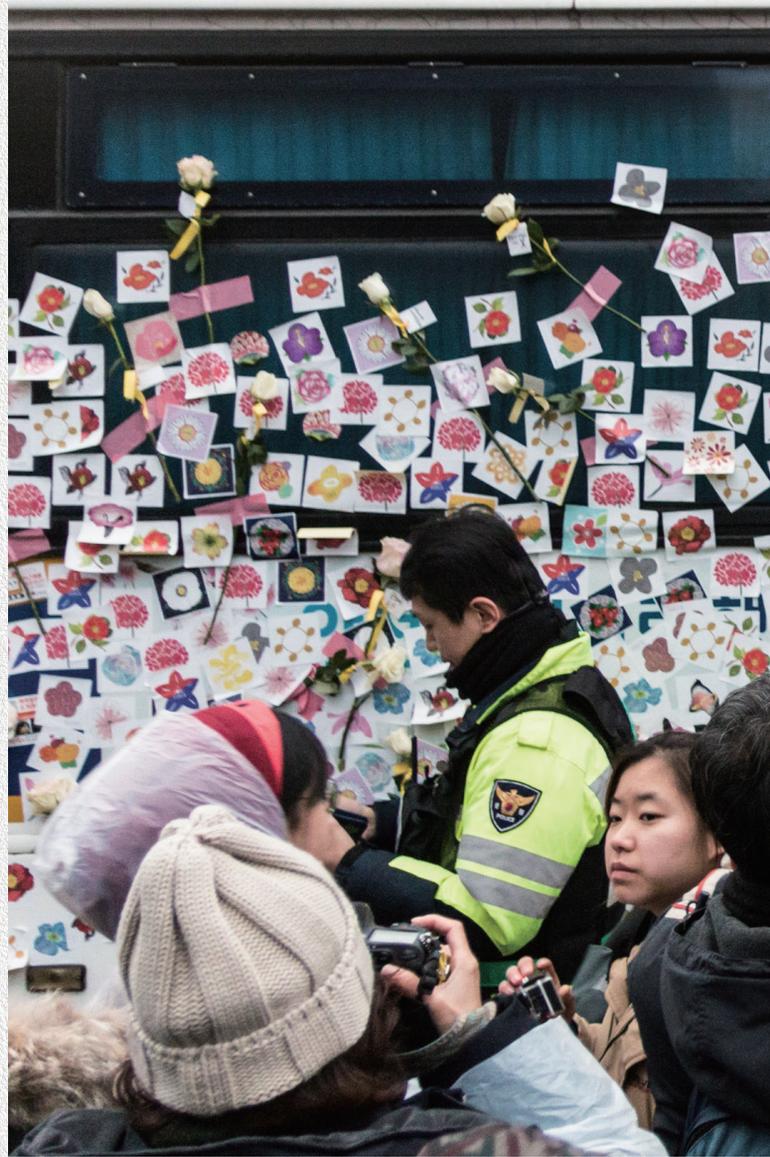
‘차벽을 꽃벽으로’ 프로젝트 기획자 이강훈

## 불통의 차벽에 꽃으로 저항하다

지난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총 8차례의 촛불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가 반복될수록 다양한 퍼포먼스와 조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화제를 낳은 것이 ‘차벽을 꽃벽으로’ 퍼포먼스였다. 경찰 차벽에 여러 시민이 꽃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호응이 뜨거웠던 반면 시위 현장에서의 저항과 평화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소설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이강훈 작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2차 집회 때부터 참석했어요. 여기저기 다녔지만 주로 경복궁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은 문화제를 진행하는 광화문 쪽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3차 집회 때 100만 명의 시민이 모였음에도 여전히 차벽이 견고하게 서 있고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이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차벽이 집회 현장에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 날따라 무척 거슬리더라고요. 뭔가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었죠. 그날 다른 장소에서 KBS 취재차량에 몇몇 시민이 항의의 의미로 손팻말과 스티커를 붙인 해프닝이 있었는데, 경찰차에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적인 구호보다는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았고 자연스럽게 ‘꽃’을 떠올렸어요. 꽃이 집회나 시위에서 평화를 상징해왔고, 특히 집회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도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차벽이 꽃으로 뒤덮이면 멋있겠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죠. 사실 혼자 하기에는 규모가 무척 큰 퍼포먼스 같아서 집회 주최 측에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일을 같이 하게 된 세븐픽처스의 전희재 대표가 그 글을 보고 ‘직접 해보면 어떨겠냐’고 역으로 제안해왔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퍼포먼스를 기획하신 입장에서 감수할 게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요.**

‘위법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행위가 ‘위법성을 지녀야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했어요. 걱정한 부분은 위법성이 있을 때 여기에 참여한 시민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100만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행동할 경우에는 아마 대표자인 저에게 책임이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할 만하겠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진행하셨는데요(인터뷰는 8차 집회(12. 17)를 앞둔 12월 14일에 진행됐다. 4~6차 집회 때 퍼포먼스가 있었고 7차 집회 때 한 차례 쉬었다). 많은 시민이 호응하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왔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호응해준 동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일단 차벽이 논쟁의 소재가 됐다는 것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첫 번째 퍼포먼스를 진행한 날 밤에 시민들이 스티커를 떼낸 해프닝이 가장 흥미로웠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드백이었고 미디어에서 이 해프닝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 논쟁이 더 불붙었어요. 스티커를 떼는 걸 잘못했다고 보는 이들과 잘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는 거죠. 저는 '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대신 다음 퍼포먼스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티커를 떼지 않을까'를 고민했어요.

**그 결과로 '잘 떨어지는 스티커'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또 엄청 욕을 먹었죠(웃음). 모든 피드백을 다 반영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퍼포먼스는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제가 작가로서 참여하는 시위의 한 형태고, 다른 시민이나 작가들은 저와 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퍼포먼스를 거듭하면서 느껴지는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착한 집회' '평화 집회'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는데, 이 퍼포먼스가 평화를 전제로 했지만 언론에서 묘사하듯 '간혀 있는' 평화가 아닌 한발 더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서 '평화적인 위법 시위'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퍼포먼스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차벽으로 다가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직접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데까지 나아갔으니 어떻게 보면 많은 분이 그런 저항 행위에 대해 자연스럽게 당당해진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꽃으로 뒤덮인 차벽과 이를 기념하는 시민들(촬영: 이한결 작가).



**집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를 유지하면서 저항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 같은 예술가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요. ‘불법은 곧 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런 계기로 인해 변화하길 바라니까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번째 퍼포먼스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 보려고 해요. 세 번의 퍼포먼스를 마치고 숨을 고르는 사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당시 국회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세월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꽃과 함께 세월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벽을 꽃벽으로’ 퍼포먼스는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나 위법성 등에서 그래피티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위법성에 대해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집회가 잘못된 것’이라는 프레임에 세뇌당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공권력의 과격한 진압을 받았고 시민은 쫓겼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들 많이 움츠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피티 같은 것도 호불호가 갈릴 수야 있겠지만 그림이 아름답고 아니고를 떠나, 일차적으로는 ‘불법이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회 현장에서 퍼포먼스나 인쇄물 등 다양한 형태의 풍자물을 볼 수 있고, 대중매체에서도 현 세태에 대한 풍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따르는데, 예술가 입장에서 이러한 풍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회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따라 풍자, 축제 형태로 나아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회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편견일 테고, 무엇보다 제일 현실적인 부분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집회에서 참여자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그런 풍자와 해학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웃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질지도 몰라요. 더 많은 상상과 더 많은 재밌는 방식이 동원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경험을 하기 위한 현명한 수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꽃’도 집회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해 한 사진가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왜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하 더군요. 꽃벽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깨달았을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의도한 바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그 의도대로 따라와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겠죠. 답을 내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게 예술가의 몫이 아닐까 해요. 그 질문으로부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꽃벽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차벽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양한 피드백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면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른 집회에서 차벽이 다시 등장한다면,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각자 스티커를 준비해서 차벽에 붙이는 등 저항의 한 방식으로 이 퍼포먼스가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져가는 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항이 지속될 수 있게 말이죠. <sup>322</sup>

글  
이아틸

사진  
김창제

프로젝트 사진 제공  
이강훈

# 서울연극센터 유망 연출가 지원

**이연주** NEWStage NEWStage N

EW **전화벨이 울린다** Stage NEW

Stage **2017.1.5.-1.8.** NEW **김정**

Sta **동숭아트센터** ge N **손님들**

EWSt **소극장** a **2017.1.12.-1.15.**

ge NEWSt **동숭아트센터** age N

EW **이은서** Stage N **소극장** EW

S **아임언아티스트** tage **신명민**

**2017.1.14.-1.18.** NE **우리별** WS

**만리동** tage **2017.1.19.-1.22.** N

**예술인주택** E **동숭아트센터** W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 살아 있는 지금, 나만의 것

아티스트 전제덕에 대해 ‘한국의 독보적인’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라는 수식어는 전혀 과하지 않다. 교육용 또는 포크 뮤지션이 간주에 이용하는 보조 악기라고 흔히 생각하던 하모니카를 음악의 중심에 둔 그는 서정적인 곡과 연주로 대중의 호응과 음악성을 두루 인정받았다. 세 장의 정규 앨범을 비롯해 대중음악 뮤지션, 다양한 연주자와의 협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 11월에는 하모니카 제작사 호너(HOHNER)가 선정하는 ‘호너 아티스트’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다. 침체된 한국 음악 신(scene)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뮤지션 전제덕을 만났다.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의 이름 앞에는 항상 국내 유일, 국내 최초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는 실제로 국내 최초의 재즈 하모니카 연주 앨범 <우리 젊은 날>(2004)을 발표했고, 이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다. 한눈파는 일 없이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라면 조금쯤 으쓱해질 만도 한 평가지만, 전제덕은 언제 어디서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 고정된 수식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고 했다. 최초나 유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반복되는 똑같은 레퍼토리가 지루하다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도 그런 그의 단호함이 ‘전제덕은 인터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업계 내의 소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실제로 인터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묻자 그는 만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 지난 시간이 가진 스토리텔링은 한계를 맞이한 것 같다고 할까요. 새로운 공연이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얘기라면 얼마든지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선구자 전제덕**

하모니카를 둘러싼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여러모로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우선 적어도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이



“제가 제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협업에서 중요해요. 제 소리가 소중하게 다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라면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모르기가 어렵다. 입을 대고 부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간단한 주법과 작고 가벼운 몸체 덕에 리코더와 함께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악기가 바로 하모니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가 아닌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모니카와 우리 사이는 갑작스레 멀어진다. 하모니카가 중심이 되는 대중음악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데다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들에 비해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탓이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큰 역할을 했다”며 크게 웃었다.

“제가 첫 앨범을 냈을 때하고만 비교해봐도 상황이 훨씬 좋아졌죠. 하모니카를 하는 친구들이 음반도 많이 내고, 학생들도 많이 들어요. 요즘은 하모니카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눈에 띄는 연주자가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하모니카로 대학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제 입장에서 그 것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나 ‘유일’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수긍하는 표정을 짓는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모니카를 많이 했잖아요. 자신만의 창작 음악을 하거나 정식 연주 음반을 낸다고는 동요 같은 것을 녹음해서 내놓거나 공연하는 경우가 흔했죠. 그런 과거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모니카로 재즈를 연주한다고 하니 신기해하던 사람들 반응도 이해는 가요. 솔직히 하모니카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가 최초라는 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초라는 말을 딱히 싫어하지도 않고요. 그런 말을 누가 싫어하겠어요(웃음).”

그런 그의 독자적인 면모는 각종 수상과의 굳건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장고 끝에 발표한 데뷔 앨범은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고, 2013년에는 한국 땅에서 대중예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예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상복’은 계속 이어졌다. 2016년 11월, 전제덕은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하모니카 브랜드 호너가 선정하는 ‘호너(HOHNER)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우상이자 벨기에의 전설적인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투츠 티레망(Toots Thielemans, 1922~2016)과 클래식 하모니카의 전설 토미 레일리(Tommy Reilly)를 비롯해 밥 딜런, 존 레논 등 역사적인 팝스타가 받은 상으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다. 축하한다는 인사에 “글쎄, 피부로 와 닿는 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예상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실제로 데뷔 앨범 발표 이후 호너사의 ‘멜로우톤’을 자주 사용하며 국내에 ‘호너 붐’을 불러온 당사자라는 걸 떠올리면 더욱 그랬다.

“딱히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호너’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주로 하

모니카나 아코디언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제가 호너를 18년째 써요. 그런데 아직도 악기상에서 1대 1 다이렉트로 수입해와요.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도 없고요. 한창 하모니카 음반 잘 팔리고 그럴 때 그쪽에서 미리 시장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웃음). 제가 이 상에 선정된 걸로 조금이라도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서 정식으로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내가 생각하는 음악, 하모니카

높은 연주 완성도와 활발한 활동 탓에 전제덕을 재즈 하모니카 외길만을 걸어온 연주자로 짐작하는 이가 많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다. 데뷔 앨범이 나온 게 그의 나이 서른, 처음 하모니카를 잡은 것도 스물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전에는 사물놀이패에서 장구를 쳤어요.” 왜 장구에서 하모니카로 종목을 바꾸었느냐는 질문에 다소 장난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

“일단 장구는 너무 힘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웃음). 반은 진심이고 반은 농담이에요. 기타나 색소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듣고 친숙한 악기이긴 한데, 이미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나이에 그걸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필드에도 꼭 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악기가 좋을까 이리저리 고민하다 운명처럼 투츠 티레망의 연주를 만난 거죠. 그런데 솔직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모니카가 이렇게 어려운 악기인 줄 몰랐어요.”

전제덕은 독학으로 재즈 하모니카를 마스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멜로디에서 공간감까지 노래 한 곡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방법을 택했고, 그 덕에 하루에 열 시간씩 연습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래도 저는 항상 하모니카의 제일 좋은 점이 일단 불면 소리가 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기타는 익숙해질 때까지 손만 아프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잖아요. 색소폰이나 트럼펫도 처음 불면 아무 소리 안 나거든요. 그런데 하모니카는 도는 숨을 내쉬고 레는 들이마시는 주법만 잘 익히면, 센스 있는 분의 경우 하모니카를 처음 만진다고 해도 10~20분 정도만 연습하면 동요 한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악기가 어디 있어요.”



**1**  
2005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을 수상한 전제덕의  
데뷔 앨범 <우리 젊은  
날>(2004).  
**2**  
왈츠, 라틴, 발라드  
등으로 연주의 폭을  
넓힌 정규 3집 앨범  
<댄싱 버드(Dancing  
Bird)>.

### 나만의 것, 나만의 소리

접근성이 좋은 보급형, 교육용 악기라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하모니카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전제덕이 본격적으로 필드에 등장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창작 앨범이나 정식으로 하모니카를 연주한 연주자 한 명을 찾기 힘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컸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연구해 심지어 ‘제즈’를 연주하는 하모니카 연주자라니. 전제덕의 등장은 아직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한국 음악계가 문득 받아 든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건 해외 사정도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해외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하모니카 연주자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대중이 알고 있는 건 밥 딜런이나 스티비 원더 같은 유명 팝 스타들이 연주하는 보조 악기로서의 하모니카가 전부죠.” 그는 씩씩함을 삼킨 채 담담하게 말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마냥 낙관할 수도 없는 현실 속 전제덕이 처음 하모니카를 택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를 잡아준 건 단 한 사람, 투츠 틸레망이다.

“하모니카는 기본적으로 생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악기입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서 시끄러울 정도로 데시벨이 높죠. 미국인들은 보통 블루스에 하모니카를 활용하고 그 생소리를 자연스럽게 살려 연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듣다 보면 귀가 아프기도 하죠. 투츠 틸레망은 달라요.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한 20여 년 전쯤 처음 듣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다르다. 단순한 하모니카 연주자가 아니라 소리 자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예요. 물론 연주도 잘하지만, 잘 불고 못 불고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

닌 거예요. 소리의 이미지 메이킹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60년 넘게 하모니카를 불었으니 당연히 모노머 초기 스테레오 사운드까지 쪽 들어오며 연구했을 테고, 마이크나 믹싱 방식 같은 디테일 하나 허투루 한 게 없어요. 그 모든 게 모여서 특유의 따뜻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투츠 틸레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제덕의 얼굴은 인터뷰의 그 어떤 순간보다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그가 얼마나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아끼는지가 단번에 전해졌다. 2004년 투츠 틸레망이 내한했을 때 직접 대기실을 찾아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는 그는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 길게 이야기를 못 나눴다. 따로 수업을 좀 받았어야 하는데…”라며 농담 섞인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가 하모니카 음악을 시작할 때 길잡이가 되어준 분이거든요. 워낙 다양한 시도를 해온 연주자라 연주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음악 구성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후기로 갈수록 따스한 소리를 내는 작품을 발표한 점도 앞으로 제가 꼭 따르고 싶은 부분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는 인터뷰 내내 ‘내 소리’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 나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향한 욕심과 자신감이 자연스레 묻어나왔다. “세션 활동을 줄인 지 꽤 됐어요. 첫 앨범을 낸 직후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거절할 때는 욕도 많이 먹었어요. 뜨고 나니 변한 거냐며(웃음). 특히 가요 작업을 하다 보면 악기를 너무 기능적으로 쓰다 보니 소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이 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서운함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전제덕만의 ‘소리’는 무얼까 무척 궁금해졌다. 세션 활동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바비킴, BMK, 박주원, 정원영, 인피니트 플로우 같은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은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 전제덕은 “모든 게 내 음악이나 음반으로 들어오면 재미있는 거고, 반대면 지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제가 제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예요. 제 소리가 소중하게 다뤄진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그가 최근 가장 신경 쓰는 존재는 다른 아닌 '대중'이다. 실제로 3집 <Dancing Bird>(2014)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중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세운 앨범이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한국인에게 익숙한 가요 곡들을 연주한 스페셜 앨범 <Another Story-한국사람>(2008)을 발표하기도 한 그가, "대중은 어렵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대중음악이나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이 열려야 한다. 편견이 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편견에 빠져버리는 수가 생긴다"며 계속해서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 아마 제가 나이를 좀 먹은 후에 음악을 시작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죠. 지금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어요. 전체를 봤을 때 내 소리가 각종 악기와 얼마만큼 조화되고 있는지, 내 소리를 어떤 스타일로 메이킹해서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같이 연주하는 아티스트, 관객, 대중과의 호흡 같은 것을 중시하게 된 거죠. 좀 더 어릴 때 입문해서 음악을 시작했으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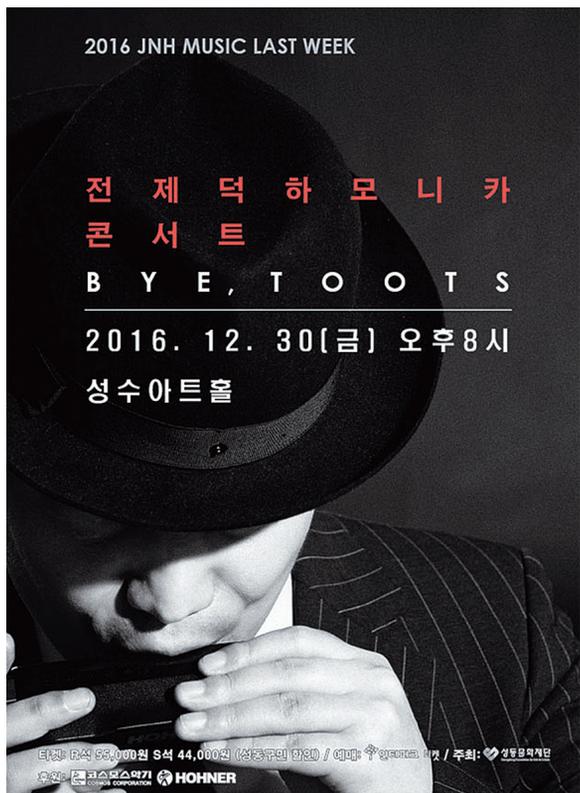
### 이 땅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

보다 많은 이들과의 호흡과 대중과의 접점을 고민하는 그에게 최근 음악 시장에 대해 묻자 "처참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끔 음반과 소리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무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몇 년을 고생해 만든 앨범이 인터넷에 통째로 올라오고, 각종 공연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데 음악가들 사기가 꺾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회 수 몇 천 몇 만 같은 숫자는 해당 사이트나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거죠. 물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저 혼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여전히 더없이 즐거운 경험이라고 했다. "공연은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거고, 음반은 수비다. 뭐든 공격을 해야 재미 있다"는 그는 "공연을 하다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듣고 있다가 순서를 까먹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씩스럽게 웃었다. 홀로 꾸미는 단독 공연을 자주 열 수 없는 공연

지난 12월 열린 전제덕의 하모니카 콘서트 <BYE, TOOTS>는 그가 음악의 길잡이로 삼은 아티스트 투츠 톨레망의 기리는 헌정 공연이었다.



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뼈아프지만, BMK나 바비킴 같은 대중가수와의 공연부터 오랜 파트너인 박주원 등 연주자들과 무대 위에서 악기로 한 판 싸움을 벌이는 격정적인 공연까지 새로운 공연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중음악, 그 가운데서도 재즈,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다는 연주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이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악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삼 궁금해졌다.

"저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뭔가를 해나갈 원동력은 필요한데 현실은 이렇고(웃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저만의 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끊임없이 좋은 음악을 찾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온 게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즈음에는 좋아하는 팝이나 외국 음악을 하모니카로 재해석한 앨범을 하나 내볼까 싶어요. 예전에 낸 가요 버전 앨범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이번이라고 완벽하다는 법은 없지만 한번 재미있게 해보아죠. 그것밖에 없어요, 이젠."

글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

사진  
김창제



정형화되지 않은 도전의 장,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

## 한국형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실험

아직도 서커스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커다란 천막 무대와 어릿광대, 동물의 묘기, 공중그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서커스가 세월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반면,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라는 이름으로 서커스 안에 여러 장르를 수용하면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의 서커스'가 유명하다. 동춘서커스 이후 유명무실했던 한국에서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을 기점으로 한국형 컨템포러리 서커스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다. 대표적인 팀이 얼마 전 공연을 마친 '봉앤줄'이다.



봉앤줄 <봉타줄타>  
(서커스+민중  
엔터테인먼트).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 멤버 (왼쪽부터) 강승우, 안재현, 김재섭.

지난 11월 18·19일 서강대 메리홀에서는 무용, 시각, 판소리와 연극, 민중 엔터테인먼트 등 4개 장르의 연출자들과 색다른 협업을 한 서커스 창작 공연 <봉앤줄>이 첫선을 보였다. 다양한 예술 장르 연출자와의 협업이 가장 큰 특징으로 연극 파트는 '다페르티토 스튜디오'의 적극이 연출을 맡았고, 소리꾼 이자람이 드라마티가로 참가했다. 무용 파트는 황수현 안무가, 안테스는 시각 파트의 연출, 민중 엔터테이너 한반은 서커스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 실험작을 내놓았다. 4가지 장르의 유니버시식 작품 속에서도 연극과 판소리를 결합한 작품은 소리와 재담을 담은 독특한 감각과 취향으로 관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연희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어필했



다. 생각보다 아찔하지도 기술이 화려하지도 않았으나 한국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미래를 여는 신선한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봉앤줄>의 무대에 선 배우들을 만났다.

봉앤줄 <봉타줄타>  
(서커스+민중  
엔터테인먼트),  
MC Wire 안재현.

**먼저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과 배우들을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안재현** 서커스 창작집단 '봉앤줄'은 내가 2015년 서울거리에 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설립했다. 봉앤줄은 일상 속에 꿈을 꾸는 듯한 세상이라는 뜻의 '헤테로토피아' 구현을 목표로 하는데 중력을 거스르는 봉과 줄을 탈 때의 움직임은 몽환적이고, 비밀상적인 헤테로토피아 구현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는 타 장르와 접목되었을 때 더욱 부각된다.

난 서른 살이 넘어 뒤늦게 연극을 시작했다. 늦은 만큼 빨리 인정받고 싶어 했으나 오히려 연극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았다. 점차 연극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을 때 우연찮게 서커스 워크숍 공고를 보고 서커스를 시작했다. 나는 봉앤줄(차이니스폴과 타이트와이어) 퍼포머다.

**김재섭** 나 역시 비보이를 하다가 잘되지 않았다, 세계대회에 나가는 어린 친구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춤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찮게 남자 폴댄스 영상을 접하고 서커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커스 공연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전에 해왔던 비보이어나 뛰어놀던 것까지도 서커스 안에 결합될 수 있도록 나만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

**강승우** 서커스를 하기 이전에 음악, 연극, 뮤지컬 등에 관심이 있었다. 모든 예술이 좋았다.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못해 어느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한 가지에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예술을 즐겁게 하고 싶었다. 서커스는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선택했다.

**서커스를 모르는 연출들이 바라보는 서커스 작품이 흥미롭다. 각 장르별 연출자들과 서커스 창작물을 함께 만들면서 어떤 점이 제일 흥미로웠나?**

**안재현** 태양의 서커스 공연자의 수준이 '100'이라면 난 '5' 정도다. 그냥 지금 나의 수준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가능성을, 나의 위치를 보여주고 싶었다. 역시 기예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니 장르별 10~15분 내외씩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생각해냈다. 협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함께 작업하는 연출자들은 단지 유명한 연출이 아니라 서커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 그들의 작업 안에 서커스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예술가를 찾았다. 연출과 배우라기보다는 작가와 작가로 동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며 나에게서 서커스는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강승우** 이 공연 직전에 신체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던 공연을 하다가 이번 공연은 출연하는 시간도 짧고 신체적으로 편하다 보니 내가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가, 이것도 서커스일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나 관객들은 무대 위 나의 모습에 공감해주었다. 서커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 이것도 서커스라고 생각했다.

**'봉앤줄'이 앞으로 또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이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안재현** 힙합서커스 '봉타줄타'의 자작 랩 중 '신체 한계의 확장은 정신 한계의 확장이 되고, 무대에서의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대목이 있다. 신체 한계의 확장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들을 꽉 채워 자유로움을 준다면, 정신 한계의 확장은 생각을 계속 비워야만 하더라.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비우고 이야기를 해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기본적인 기예 트레이닝에 집중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물론 신체 한계가 확장되고 다시 생각이 비워지면 언제든 다른 장르와 협업을 이어가고 싶다.

**관객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성향이 짙은 태양의 서커스를 기대하고 한국의 서커스를 바라본다. 한국의 현대 서커스는 어떤 모습이고 당신의 서커스는 무엇인가?**

**안재현** 봉타기 줄타기 동작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더 뽐내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럼 정말 위험한니까. 가진 능력만큼만 연기하면 되는데, 딱 한번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다 큰 부상을 당했다. 서커스를 하다가

다친 대한민국 1호이지 않을까.(웃음) 내가 하고 싶은 서커스는 단순하게 봉에 오르는데 그 걸음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 보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 한국의 서커스, 나의 서커스는 지금 이 순간에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재섭** 서커스는 기예가 기본이 되어 기술로 보여줄 있는 것이 더는 없을 때 컨템포러리 서커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서커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강승우** 서커스는 개인적 집단주의, 개인적 다양성의 인정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서커스는 빠르다. 서커스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현대 서커스 창작워크숍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 잠재력은 대단하다. 전통 줄타기만 봐도 태양의 서커스의 줄타기에 건줄 만하다. 우리나라에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 한국 서커스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단체의 공연이 초대권 없이 전석 매진됐다. 관객을 사로잡은 서커스의 매력은 무엇일까?**

**안재현** 가장 큰 매력은 죽음이다. 아슬아슬함. 그것이 어디서 기인할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내 눈앞에서 목격하는 상상을 한다. 떨어질까? 떨어지면 머리가 깨질까? 등등을 짧은 시간 상상한다. 그러다 배우가 성공하면 안도하고 환호한다. 죽음과 살아 있음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서커스의 매력인 것 같다. 화려함은 대체 가능하나 죽음과 삶을 보여주는 것은 서커스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서커스만의 차별성이다.

**앞으로 어떤 서커스를 하고 싶은가?**

**안재현** 관객들이 일상에서 지쳐갈 때 내 공연을 보고 한 번쯤은 이런 걸 도전해볼까를 생각해보면 삶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매달 공연을 하는 <월간 봉앤줄>을 구상하고 있다. 사람마다 봉과 줄을 타는 방식이 다르기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봉과 줄을 타는 공연.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그 안에서 다양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봉 위에서 줄 위에서 자유롭기 위해 트레이닝에 집중하려고 한다.



**강승우** 서커스의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서커스 예술교육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개인적이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다. 서커스의 교육적 가치는 높다. 특히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음악과 미술을 배우듯이 서커스를 배우는 것도 충분히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재섭** 꿈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큰 꿈을 위해 서커스 배우로서 교육자로서 연출자로서 서커스와 관련된 모든 일 안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의 서커스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타 장르와 협업을 통해 나만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

**서커스를 하고자 하는 배우나 연출자에게 조언한다면?**

**김재섭** 연출이 서커스를 잘 모를 경우 배우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배우가 단호하게 본인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한다. 서커스 배우를 위한 위험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강승우** 서커스를 하는 사람보다는 서커스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안전을 생각해야 하지만,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봉앤줄의 공연 <봉타줄타> (위 사진, 서커스+민중엔터테인먼트, 봉기보이 B보이 김재섭)와 <봉앤줄> (아래 오른쪽 사진, 서커스+연극, 적극연출+이지람 드라마티크).



서커스가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죽음을 감수하는 도전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향한 즐거운 여행이다. 우리에게 많은 동료 필요하다.

**안재현** 서커스는 이래야 한다라고 미리 규정짓지 말고 뭐든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물구나무를 한 시간씩 서려고 하는 것도 서커스다. 흥미로운 점을 느낀다면 도전해보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서커스다.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봉이나 줄을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장소만 있다면 함께 하자.

글 최봉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진 김항제

공연 사진 제공 봉앤줄



김현승  
박도빈



오진이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예술 활동에서 '지역'은 이미 중요한 키워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거시적인 관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내 이웃과 함께 내가 사는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전환을 모색하고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이 늘고 있다. 목표의 달성과 성과보다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삶을 지속할지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활동이 동네의 풍경, 그곳을 살아가는 이들의 표정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그러한 변화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다원



황윤호

사회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토론 김현승 동대문옥상낙원(DRP) 공동운영자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대표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황윤호 9Road 공동대표  
 일시 2016. 12. 15(목) 14:00~16:00  
 장소 서울문화재단 1층 책다방

2017년 정유년은 IMF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인적으로 2017년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며 만들어온 사회적 자본을 본격적인 어젠다로 끌어다놓고 할 수 있는 때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변화를 꿈꾸면서 2017년 첫 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4개 단체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단체를 소개해주시고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유다원** 저희는 원래 공공미술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5년 정도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국가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 끝나면 활동하던 지역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거기 사는 분들과 친해지면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반복되었고, 우리가 나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살면 좋겠다, 삶과 일이 일치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일을 다 그만두고 동네(목2동)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먹고살아야 하니까 카페 겸 작업실(숙영원)로 시작했구요. 집값이 싼 줄 알고 갔는데 비싼 동네더라고요. 5층 이하의 낮은 빌라촌이어서 아기자기하고 뒤에 산이 있고 가까이에 천도 있는 지역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카페 겸 작업실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역지로 기획해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서 1년 동안은 카페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영업자로 지낸 그 1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볼까 하고 축제를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동네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려온 것 같아요.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바꿔야 하는데 외부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와서 지역을 바꾸고 떠나는 방식의 작업에 대해 의문이 많았어요.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예술이라는 매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제가 활동하는 곳은 동대문 옥상낙원 DRP(Dongdaemun

Rooftop Paradise)인데요. DDP가 생길 때 대항마로 만들었지만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에 DDP가 생기면 동대문에 문화적인 변화가 생기고 전체적인 지형이 달라질 텐데, 예술가나 청년들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리서치가 2013년 말에 진행됐어요. 그때 박찬국 작가가 디렉터 역할을 해주면서 다양한 예술가, 청년들과 만나게 되었고요. 저도 기존에는 그림을 그리다 화이트 큐브 안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공공미술 형태의 활동을 해오다가 결합하게 되었어요. 리서치 활동을 2개월간 하면서 동대문이 갖고 있는 여전한 장벽을 느꼈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가 옥상이라는 공간이었어요. 동대문은 지대가 비싸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곳인데 반해, 옥상은 주목하지 않는 공간이고 비어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의 빈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상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떤 활동을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정체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낙원의 조건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같아요. 공간에 얽매인다고보다 어떤 공간이 하나의 매개가 되는 조건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도빈** 저희도 비슷한데요. 멤버들은 5~6년 전 안산 원곡동의 리트머스라는 곳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만났어요. 1년 정도 같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각자 한곳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조직이나 단체, 기반 안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동네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강북구로 온 데는 집값이 싼 이유가 가장 컸어요. 다 다른 곳에 살다가 이사를 왔고 2년 정도 주민을 만나면서 준비했고, 공간(동네공터)을 잡고 운영한 것은 올해 3년째인데요. 조직은 처음에 하나의 미션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하자. 그동안 해보니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으

저희는 크게 희열을 느끼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모든 기준이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존의 지역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공동체 경험이 없는 세대도 지역에 와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박도빈** 동네형들 공동대표

재단도 이제 14년차인데 더 이상 비대해지지 말고  
우리가 파트너로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밥을 먹는 행위를 같이 해볼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밑에 깔리게 되는 것 같아요.

**황윤호** 9Road 공동대표

로 하는데 저희의 주 수입원이죠. 밖에서 돈을 벌면서 동네  
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고 청년들을 계속 만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없어요. 교육이건 워크숍이건 가장 못하는 사람에 맞춰서 하  
다 보니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황윤호** 저희는 내년이면 3년차인데요. 9road(나인로드)는  
'하나의 삶, 여러 개의 길, 수많은 인연'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특이하게 공동운영자 두 명 다 비문화계 출신이  
예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전에 있던 공간에  
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였는데요. 그때 그 느낌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하면서 비슷  
한 것은 찾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끔 어머님들이 오  
히려 생판 모르는 아주머님들과 만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나를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더 진지하게 받아준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시작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예술 활동으로 무언가 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주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  
을 통해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소셜 다이닝을 하고 있는데, 밥의 힘이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박도빈** 가장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똑같이 먹는 밥이지만 그  
안에서도 빈부차가 커요. 동네 청년들은 밥을 제대로 못 챙  
겨 먹거든요. 동네에 혼자 사는 청년들이랑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공간은 마을카페 안에 있어서 부엌을 운영하는 분이 있  
는데, 직거래로 제철 재료를 사서 조미료를 안 쓰고 음식을  
해주시거든요. 길게 하는 프로그램에는 음식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아요. 모든 행사의 가장 큰 성공 요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는 중국집을 하나  
빌려서 워크숍을 했는데, 50명이 와 비좁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 시간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만족하고 돌아  
갔어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이  
야기는 훨씬 더 일상적일 수 있고 그냥 회의실에서 하는 것  
과는 다를 수 있죠.

**황윤호**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밥을 먹는 행위를 같이 해볼 경  
험이 적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홀리는 듯한 느낌이 있  
어요.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다'가 밑에 깔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이 콘텐츠 자체가 특출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만족  
감을 키우기 위해 모임에 항상 밥을 끼워 넣어요.

**유다원** 저희는 인문학 강의가 끝나면 무조건 다 같이 술을 마  
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쓸데없는 걸치레 이야기를  
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지역에 대  
한 고민도 나와요.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고 술자리를 통해  
일이 많이 생겼어요.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느린 동네예요. 단 한 명도 진취적인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확대되거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소심  
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네트워크도 느릿느릿하지만 밀  
도 있는 관계망 때문에 7년 만에 동네에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동주택도 만들고 마을기금도 모으고 축  
제도 8,000명이 오는 규모이고요. 느린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대  
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여유 있게 봐주면 그게 오히려 나중  
에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진이** 중요한 애깁니다. 공공기관 등 기금을 지원하는 곳에  
서는 성과가 빨리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데요. 오히려 7년  
의 긴 걸음 끝에 공동주택을 만들고,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걸  
보면 지역 생존에서든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긴 호  
흡이 절실하고, 그것의 바탕엔 같이 밥을 먹는 시간과 경험  
의 공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현승**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  
가서 같이 요리를 해먹고 필요한 재료를 재배하는 과정을 같  
이 하다 보니, 단순하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전봇대집'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콘셉트 중 하나가 '키친팜'이에요. 식당  
이 있고 주변에 작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재배하고 요리하고 나눠 먹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관계



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지로 식사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심사에 따라 모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조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보통 걸로 드러나는 완성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하면 좀 더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단 대표께서 최근 ‘예술가나 청년, 기획자의 곁에서 돌지 말고 걸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보통 동네에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서로 간에 디테일하게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희망을 느꼈거나 혹은 반대로 절망을 느꼈을 때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원** 동네로 들어오기 전에 큰 고민 중 하나가 개인의 일상이 없어지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계속 질문하게 되었어요. 지역에 돌아와서는 첫 번째 모토부터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자’였어요. 동네에서의 활동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은 줄어들었지만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뀐 거 같지는 않

아요.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저희가 행복해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없어질 거 같은 거예요. 1년 사이에 전세가 1억 원 정도 올라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도 늘어났는데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려다 보니 마을 학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거리도 해결해갔어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활동비가 생겼어요. 주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공부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7가구가 모여서 집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 마치 운명처럼 좋은 집이 있었어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1년 만에 입주했어요. 꿈 같은 일이 동네에서 항상 일어나요.

**오진이** 단체들이 꿈꾸는 시민 자산화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전혀 느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웃음).

**유다원** 원래는 엄청 느린데 작년에 속도가 한번 붙은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지속할지 고민하면서 알아보다가 작년에 공공 공간 하나를 받았어요. 용왕산에 있는데 2017년에 들어

동대문 신발도매상가 B동에 자리한 동대문옥상낙원(DRP).



동네형들이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 철기방'.

가려고 리모델링 중이에요. 만약 우리만 있었으면 안 되었을 거예요. 지역에 여러 분이 있고 같이 이야기해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오진이** 보통 지역의 자원인 분들은 숨어 있는데, 카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

**유다원** 저희 공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1년 동안은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박도빈** 같은 고민이지만 다른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각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없었어요. 지역 활동을 이렇게 해야 하고, 모든 주민을 만나야 한다는 데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고요. 저희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저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느린 동네예요. 소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네트워크도 느릿느릿하지만 밀도 있는 관계망 때문에 7년 만에 동네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다원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공동대표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보는데 같이 살기까지 하면 새로운 것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 저희는 그래서 1월에는 일을 안 해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처음 청년들이 들어오면 누구든 응원 해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지역의 자원을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네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정치적이지 않기 위해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희열을 느끼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기준이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존의 지역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공동체 경험이 없는 2030세대들도 들어와서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황윤호** 저희는 아직 지역적으로 깊게 뿌리내린 것은 없어요. 예로 들 것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방향을 트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공간에 오신 분 중 한 분이 35세였는데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은퇴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하시더니 저희 집에 오신 지 1년 반 만에 고깃집을 차렸어요. 마음 맞는 분을 저희 공간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도 내가 고깃집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다른 한 분은 아기 아빠인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꿨어요. 괜찮을까 했는데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셨거든요. 저희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제주에서 나누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이 조금씩 퍼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네요. 평소에 공공기관과 일하거나 활동하면서 느낀 한계는 무엇일까요? 과연 공공기관이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도빈** 재단에서 파트너로 여겨지는 현장의 공간이나 단체가 있어요?

**오진이** '복작복작 예술로'같은 경우 담당자와 교감이 잘되는 예술단체가 있더라고요.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안무가와 오늘 오신 DRP 또한 좋은 파트너입니다. 재단 담당자와 사업을 만드는 분들 간에 사업 목적에 공감하고 서로 뜻이 잘 맞으면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데, 서로 숙제처럼 영혼 없이 하게 되면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황윤호** 활동하는 분들은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는데 공공기관 분들은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플러스마이너스1도씨가 지역문화 때문에 가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지역문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지역문화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맞춰주어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오진이** 대부분 사업 계획에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고 성과 목표가 설정되다 보니, 지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해마다 트렌드에 따라 변할 필요는 없는데 보여주기식의 성과 중심인 현실에서는 정책 소모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김현승**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실패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지표가 굉장히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양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중간 조직은 재원이 나오는 쪽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데요. 성과를 같이 내자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자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원 조직에서는 관계의 상하구조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프로젝트 기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다음 과정을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의 성과처럼 해석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지역 문화단체가 파트너가 되느냐 아니냐는 서로 과정을 공유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새해 첫 호인 만큼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유다원** 2017년에는 다시 작아지고 싶어요. 작년과 올해 너무 많이 팽창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왔어요. 마을축제를 가보면 작은 축제일수록 더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도 제일 작은 축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작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끼리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을에 여러 작은 끼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끼리 문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척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산에 올라가 지내게 될 테니 좀 더 산에 파묻혀서 작업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10회, 20회로 하고 몇 명이 상 모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 불러서 놓고, 일상적으로 아이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과지표가 굉장히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양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김현승** 동대문옥상낙원(DRP) 공동운영자

을 만나고 싶어요.

**오진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은 저한테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재단도 이제 14년 차거든요. 더 이상은 비대해지지 말고 예술가 또는 시민과 우리가 파트너의 관계인지, 형식적인 관계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김현승**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연쇄작용처럼 계속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 편이에요. 2016년의 활동을 고민해보면서 2017년의 활동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가끔 불가피하게 일이 계속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힘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받아서 쿠바에 답사를 가게 되었어요. 가서 멤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어보려고 해요. 한 번쯤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어떻게 활동할지 길게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도빈** 매년 똑같은데, 2017년에도 버티는 거예요. 포럼 같은 데 나오면 잘한 거만 얘기하는데 막상 공간으로 돌아가면 풀리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표예요.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문 닫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1월에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황윤호** 저희도 다시 공간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년차에 다져놓아서 약간 높아진 담을 2년차에 터보았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딱 몇 가지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다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숨 고르기를 위한 해네요. 지역에서 체인지 메이커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큰 역할의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다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지점으로 다가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앞서 '나'라는 지역부터 제대로 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최영진

자료 사진  
각 단체 제공

로봇 공연 기획자 허창용

# 로봇을 움직이는 아날로그감성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됐다. 머지않아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과 결합해 움직이고 창작하는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공장과 생활 곳곳에서 로봇을 만나는 상황이 온다.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에는 공연장에서도 로봇의 무대를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엔터테이너로서 로봇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로봇 공연 기획자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가로서 나는 늘 대중과 소통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조소를 전공했지만 일반 재료보다는 키네틱아트나 부수적인 오브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미술 사조인 ‘플럭서스(Fluxus)\*’에 빠져 미술관을 벗어나 행위예술을 했고, 탈장르 공연 분야에서 활동했다. 언버벌 퍼포먼스 초창기 <The Silver>라는 공연에 마임 연기자로 참여하다, 필자가 엔딩 장면에 제안해 만든 것이 로봇 판타지의 시작이었다.

이후 여러 작업을 진행하며 시각예술에 특화된 공연,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주얼아트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비주얼아트연구소의 로봇 공연은 코스튬을 제작해 마임 연기자에게 입혀 로봇보다 더 리얼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마술 같은 판타지 공연이다.

##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의 로봇에 대한 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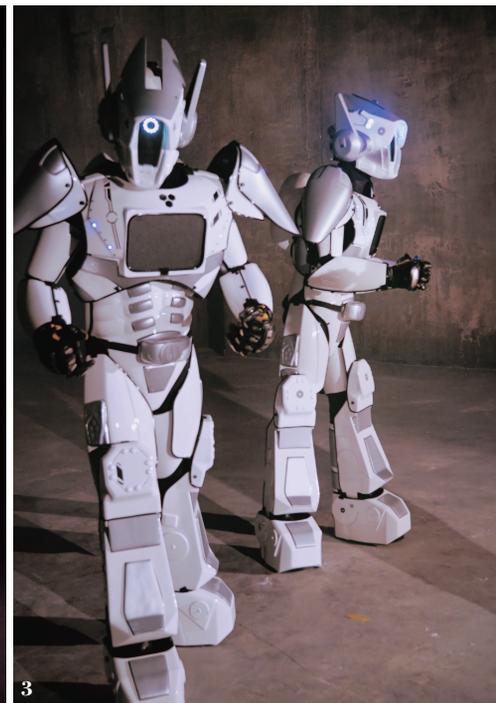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로, ‘마징가’나 ‘그랜다이저’ 같은 이름을 안다면 당신도 로봇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안드로이드형 로봇 아시모의 개발자도 ‘아톰’을 보고 자란 세대다. 어릴 때 로봇 애니메이션과 SF영화를 무수히 반복 재생하며 즐겼고, 로봇 장난감 여러 대를 분해해 하나의 거대 로봇을 만들곤 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게 작업하고 있다.

연기자에게 입히는 코스튬이기 때문에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사용해 만들기에는 연기자가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다. 오토바이 카울(외장)을 직소기로 잘라 로봇의 형태를 만들고 키다리 장비를 이용해 현실에는 없는 230cm의 직립보행이 가능한 거대한 로봇을 탄생시켰다. 20년 전 필자가 만든 로봇의 형태를 근래에 제작된 로봇과 비교해볼 때 그 형태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은 로봇이 과학 축제나 페스티벌 등 가족 단위의 관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초청되지만 초창기에는 전자회사, 통신회사와 기계박람회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 행사에서 공연을 많이 했다. 공연 후 어떤 모터로 쓰냐는 질문도 받고, 로봇 퍼포먼스를 보며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어린이의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물론 코스튬에 속았다는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도 결국 픽션이다.

## 최신 기술을 익히되 로봇에 아날로그를 입힐 수 있는 감성

현재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발달로 리얼 로봇들이 걸어 다니지만, 엔터테이너로서의 기술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외국



1, 2, 3  
비주얼아트연구소에서  
2016년 제작한 아트봇.  
4  
초창기 제작한 로봇. 이들은 산업 관련  
행사에서 주로 선보였다.



사례에서도 걸어 다니는 로봇은 아직 사람 연기자의 도움을 받는다. 로봇 공연 연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로봇의 감성과 스토리다. 각각의 스토리마다 움직임과 성격 등 캐릭터를 다르게 부여한다. 공연 외적으로 로봇 연출가로서의 노력은 현대미술가의 개념 작품을 즐겨 찾아보거나, 3D 프린팅이나 드론처럼 최신 기술에 대한 자료 및 기사를 항상 스크랩해 챙겨두는 것이다. 오래된 카세트테이프나 오디오를 고치는 것처럼 기계에 대한 애정 역시 로봇에 아날로그를 입히는 로봇 연출가로서의 중요한 감성이 아닐까 한다.

2016년 제작한 '아트봇(ARTBOT)'은 미국 제작사에 주문·제작 등 공정을 의뢰했다. 스타워즈 의상이나 특수효과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는 아직 이렇다 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로봇이 군무를 추는 공연을 기획하며, 일만 2대만 들여와 대중의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그리고 홍대 앞 거리에서 쇼케이스를 열어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ARTBOT'은 현대인에게 던질 메시지를 로봇이 해석적으로 전달하는 거리공연인 '크라운마임'으로도 기획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거리 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최근엔 자동차 대기업의 전시관 내 로봇 퍼포먼스 연출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공정용 로봇 암(Robot Arm) 6대를 EDM(Electronic Dance Music) 공연으로 만드는 콘셉트를 잡아 놓은 상태다. '리얼 로봇들이 댄스와 마임을 연출해 감성을 갖는 로봇으로 재탄생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이제껏 볼 수 없던 거대 로봇 퍼포먼스이기에 스스로 매우 기대되는 공연이다.

로봇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머지않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술가에게도 그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남준이 TV를 예술의 오브제로 들고 나온 것이 미디어아트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에게 로봇이 예술의 재료로 준비되어 있는 시점이다. <sup>1)</sup>

\* '플럭서스(Fluxus)'는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 등을 뜻하는 라틴어로, 1960~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운동이다.

글  
허창용  
비주얼아트연구소  
대표. EBS가죽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제작감독, 로봇  
퍼포먼스 〈ARTBOT〉  
〈포스트맨〉 등을  
연출했고 중국 상하이  
박람회 'CEBIT'  
삼성전자관, G-STAR  
국제 게임쇼 'SK  
TELECOM' 전시관,  
BMW,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기업 전시관 연출을  
담당했다.

사진 제공  
비주얼아트연구소  
www.artbot.co.kr



같이 되어있던 새벽녘에  
형클어진 숲을 쓸어들리며  
첫눈처럼 집을 갔다

- 박현수 시인 시 <세한도(歲寒圖)> 중에서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쟁

# ‘행정의 관성’에 맞서 홍대 앞을 지켜라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라이브클럽협동조합’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위원장’... 이름조차 생소한 단체들이 뭉쳐 지난 11월 서울 마포구로부터 한 결정을 이끌어냈다. “올해 안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 방지 대책을 추가해 보완하겠다”는 것. 문화예술인의 터전처럼 여겨지는 ‘홍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은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마포구는 홍대 입구와 합정동, 서교동, 상수동 등 일대 상권을 포함한 너비 약 99만 3000㎡ 지역을 ‘홍대 관광특구’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 외국인 관광객 651만 명이 마포를 다녀갔다. 2020년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마포구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내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끝낼 계획이었다.

### 홍대 관광특구 지정 논쟁의 촉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50만 명 이상,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시설이나 각종 행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또 용적률 규제가 완화돼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고 카지노·옥외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서울 시내 관광특구는 중구 명동·남대문, 북창동 일대와 동대문구 패션타운,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종로구 종로·청계천 일대, 송파구 잠실, 강남구 강남 마이스(무역센터 일대) 등이다.

얼핏 보면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대 앞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상인들은 지난 10월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꾸리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임대료 상승과 상권의 변질 등으로 중국에는 '홍대 앞의 색깔'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명동이나 강남처럼 바뀐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디밴드들이 릴레이 공연을 벌이면서 "홍대 앞을 살려달라"고 대중에게 호소했다. 대책회의가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침내 마포구가 보안을 전제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 서브컬처의 성지, 홍대 앞의 위기

홍대 앞의 자유분방한 문화적 색채는 1990년대 들어서기 시작한 라이브클럽이 그 시작점이라고 보는 분석이 많다. 이전만 해도 홍대 앞은 문화예술의 변방에 가까웠다. 음악은 헤비메탈, 블루스, 포크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즐비한 신촌, 문학이나 공연은 소극장과 다방이 모여 있는 대학로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다.

1996년 이런 구도에 변화를 널리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홍대 앞 거리에서 진행된 '스트리트 펑크쇼'다. 한국 'B급 문화'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는 서막이었다. 지금은 불후의 명곡이 된 크라이그의 <말달리자>나 노브레인의 <배고파>가 지하 라이브 클럽을 벗어나 지상에 울려 퍼졌다. 이후 '쓰리코드'로 상징되는 펑크나 얼터너티브, 기타 하나로 '찌질함'을 표현하는 노래들이 홍대 앞에서 활발하게 피어났다. 스팅글, 빵 등 라이브클럽들이 호황을 맞았고, 마스터플랜과 같은 1세대 힙합클럽도 태동했다.

홍대 앞 예술인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놀이터(홍익 어린이공원의 별칭)'에 모였다. 비슷한 유(類)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홍대 놀이터 '프리마켓'에서 예술인들은 자신이 만든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상점들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고 저마다 개성을 내세웠다. 홍대 앞은 한국 서브컬처(주류 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의 하위 문화)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 '홍대 앞 투쟁'은 아직 진행 중

지금 홍대 앞에서는 이 같은 원래의 문화적 색채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라이브클럽은 클럽이라는 댄스클럽들로 대체됐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속속 자리 잡았다. 거리공연(버스킹)은 이제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프로모션 수단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아류(물론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버스킹도 많지만 전반적으로)로 전락했다. "홍대 앞은 망했다"는 푸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럼에도 서브컬처의 유산과, 좁은 골목들이 어지럽게 나 있는 지리적 특성이 어우러져 색깔을 조금은 유지하고 있다고 문화예술인들은 평가한다. 문화평론가 김작가 씨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과 면세점만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며 "그나마 남아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마저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독립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행정의 관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있다. 한국 관료사회에는, 기안하고 결재가 난 계획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다. 중간에 '스톱'이 되면 사유를 해명해야 하고 누군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대책회의 측은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 추진을 2016년 내에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마포구청 앞에서 진행하던 1인 시위 등은 중단됐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 앞 투쟁'은 아직 진행형이다.

1, 2  
홍대관광특구대책회의 페이스북(사진 2)에서는 홍대 관광특구 반대 손팻켓 인증샷 릴레이가 진행되고 있다.

3  
지난 10월 20일 뮤지션 아가타 트웍스터와 홍우주 조합원들이 홍대 앞 주차장 골목과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홍대 관광특구 지정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4  
2016년 10월 19일 홍대 앞 롤링홀에서 열린 홍대 관광특구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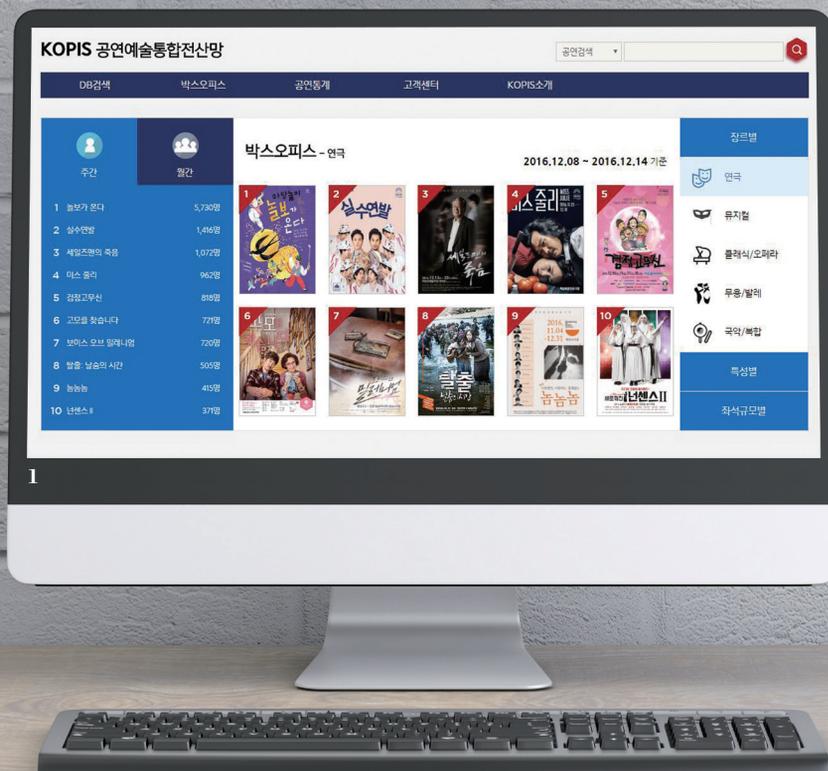
글  
황태호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사진 출처  
홍대관광특구대책회의 페이스북  
www.facebook.com/maposightseein

2017년부터 주요 예매처 6곳 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반영 시작

## 공연계 발전을 위한 첫발 댄다

2017년 1월부터 인터파크, 예스24 등 주요 예매처 6곳의 데이터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에 반영된다. 이로써 관객, 공연 제작자, 투자자, 정책연구가 등 다양한 층위에서 필요로 하던 누적 관객 수나 평점, 소비 현황 통계, 박스오피스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관계자들은 어렵게 문을 연 공연전산망이 공연예술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대와 우려 속, 2년 반의 시범 운영

2014년 7월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공연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사이트 오픈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빗발치는 언론의 문의 전화를 받는 사이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이었고, 또 하나는 포털 사이트 A였다. 두 곳 모두 공연전산망이 생겨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언제쯤이면 전체 공연 시장의 소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공연 소비 현황 통계가 필요하고, 포털 사이트 A는 공연 정보 검색 시 박스오피스 집계를 함께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는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몇몇 공연시설 중심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때라 전체 시장의 10% 미만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었다. 또 일부에서는 공연전산망의 필요성과 진행 방향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있어서 정확한 일시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쉽게 전화를 끊은 기억이 있다.

### 온라인 예매 시장의 80% 점유한 예매처 6곳의 참여

그 후로 2년 반 동안 기획사, 제작사, 공연 시설, 예매처, 투자자, 예매 시스템 운영업체, 학계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그룹을 만나서 공연전산망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11월 국내 공연 티켓 온라인 예매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예매처 6곳(에스24, 옥션, 인터파크, 하나투어, 클럽서비스, NHN티케팅)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공연전산망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2월 시스템 연계 테스트와 안정화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공연 시설과 예매처의 예매 정보가 통합되어 공연전산망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공연 소비시장의 전체 현황과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기간, 지역, 장르, 티켓 가격대, 창작·라이선스별 종합 통계가 제공되며, 세부 항목은 개막 편수, 상연 횟수, 관객 수(초대 관객 포함), 티켓 판매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 투자, 관객, 연구, 정책 등 공연계의 다각적 변화 기대

공연법 개정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1~2년 안에 공연전산망은 공신력 있는 통계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다. 공연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투자 측면에서는 현행 원금 보장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처럼 제작자와 투자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자본의 적절한 감시와 감독하에 제작과 유통 과정은 좀 더 체계화될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될 것이다.

둘째,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연전산망이 포털과 제휴하게 되면, 소비자는 포털 검색 화면에서 공연 정보, 예매율, 누적 관객 수, 나아가 평점과 리뷰같이 관람 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포털에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공연업계가 경쟁력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연전산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의 단계별(제작·유통·소비) 구조, 인력, 비용, 커뮤니케이션 방식, 정책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연구가 많아질 것이다. 또 이런 연구가 많아질수록 관련 종사자들이 공연계의 현실을 자각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공연전산망이 제공하는 통계는 공연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산업 현황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분야와 방식이 결정되면 공연업계, 특히 기획제작사에 가장 큰 긍정적인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연전산망은 이제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 공연전산망은 단순히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포털 제휴, 소비 동향 분석 리포트 발행, 빅데이터 결합 연구 등을 통해 기능과 외연을 확장하고, 공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여전히 공연이 시장을 넘어 산업으로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가본 적 없는 길에서, 공연전산망이 요긴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사이트 메인 화면 (출처: 공연전산망 www.kopis.or.kr).  
2 2016년 11월 10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예매처 6곳의 공연전산망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글 김현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정보팀장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성황리 개최

##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

2016년 12월 8일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다. 한 해 동안 진행한 예술 후원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장이자,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만남의 자리다. 이날의 주제는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이었다.

### 우리 연애히까요?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미는 것이 힘들까요? 당기는 것이 힘들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힘겨루기의 밀고 당기기가 아닌 예술을 사이에 둔 아름다운 밀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술,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 여기서의 ‘밀당’은 힘겨루기의 밀고 당기기가 아니다. ‘예술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밀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밀당’은 연애의 밀당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 ‘예술을 밀고 당긴다’, 즉 한쪽에서는 재단이 예술을 밀고(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원자들이 예술을 끌어당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밀당’은 남녀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메세나(Mecena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메세나라 기업들이 문화 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단은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기업과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재단의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을 통해 매칭된 기업과 예술단체의 매칭이 성사된 것이 93건에 이른다. 사실 이런 기업과 예술단체의 만남은 연애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은 후원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모색하고 예술단체는 그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 서로에게 꼭 맞는 상대를 만나기 위해 탐색하고, 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설득한다. 결연을 한 후에도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는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결혼했어요’다.

연애에서의 ‘밀당’은 적절한 시기에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을 뜻한다. 연애에서 밀당은 참 어렵다. 연애에서뿐만 아니라 메세나 관련 업무에서도 필자는 여전히 쉽지 않은 밀당을 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단체를 매칭하는 데,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을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당겨야만 한다. 영업사원처럼 직접 기업에 찾아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후원을 요청하지만 설득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의 단체를 통한



구호활동 지원, 빈곤아동후원 등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후원의 참여가 빈번하지만 예술 분야에서의 후원자들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예술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조건 없는 밀당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 해 동안 재단과 함께 예술을 키우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다.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을 통해 25개의 예술단체를 후원한 24개의 기업을 대표로 (주)로봇에프엔비와 한국무역협회가, 재단의 예술제휴사업의 후원기업인 한성자동차, 올림푸스 한국,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아제약 그리고 서울거리예술축제와 함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네오모토, 오토인더스트리, 협찬 기업 씨타카드가 감사패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더욱 더 뜻 깊었던 이유는, 2016년 예술을 함께 힘껏 당겨준 한국무역협회에 이어 2017년에는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이 서울메세나지원사업 후원에 동참해 예술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로 약속했다는 데 있다. 2015년 무역센터 스페셜 트랙에 이어 2016년에는 2개의 트랙이 추가 신설되어 더 많은 예술가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달’과 소리꾼 고영열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공과 기업이 함께 어우러져 예술을 응원하는 것처럼, 다른 스타일이지만 새로운 조화를 선사하는 클래식과 판소리의 아름다운 만남은 예술에 경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듯했다. 현대 음악과 어우러진 국악의 장단과 추임새에 따라 후원의 밤 행사라고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앉아 있던 참석자들의 표정은 한결 즐겁고 편안해졌다.

“출두야 출두야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 암행어사 출두 허옵신다 어허 우리 고을 큰일났다” 춘향가 중 <어서출두> 대목이 연주되자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음악을 흥겹게 즐기는 모습은 바로 예술로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예술은 그야말로 매력적이다. 예술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술을 가까이 지원하고자 하는 후원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매력적이고 감동적이다. 예술로 함께 더 즐겁고 다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해보는 밤이었다.

그다음 날, 후원을 약속한 아시아나항공을 대표해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상무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고영열의 판소리 공연이 인상 깊고 뇌리에 박혀 판소리를 직접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는 멋진 소식이었다. 이렇게 또, 예술과 사랑에 빠진 누군가의 ‘밀당’이 시작된 것이다.

- 1 성황리 개최된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 2 행사 1, 2부의 사회를 맡은 오상진 아나운서.
- 3 ‘예술과의 밀당’을 주제로 인사말을 하는 주철환 대표이사.
- 4 많은 호응을 얻은 ‘두 번째 달’과 소리꾼 고영열의 공연.
- 5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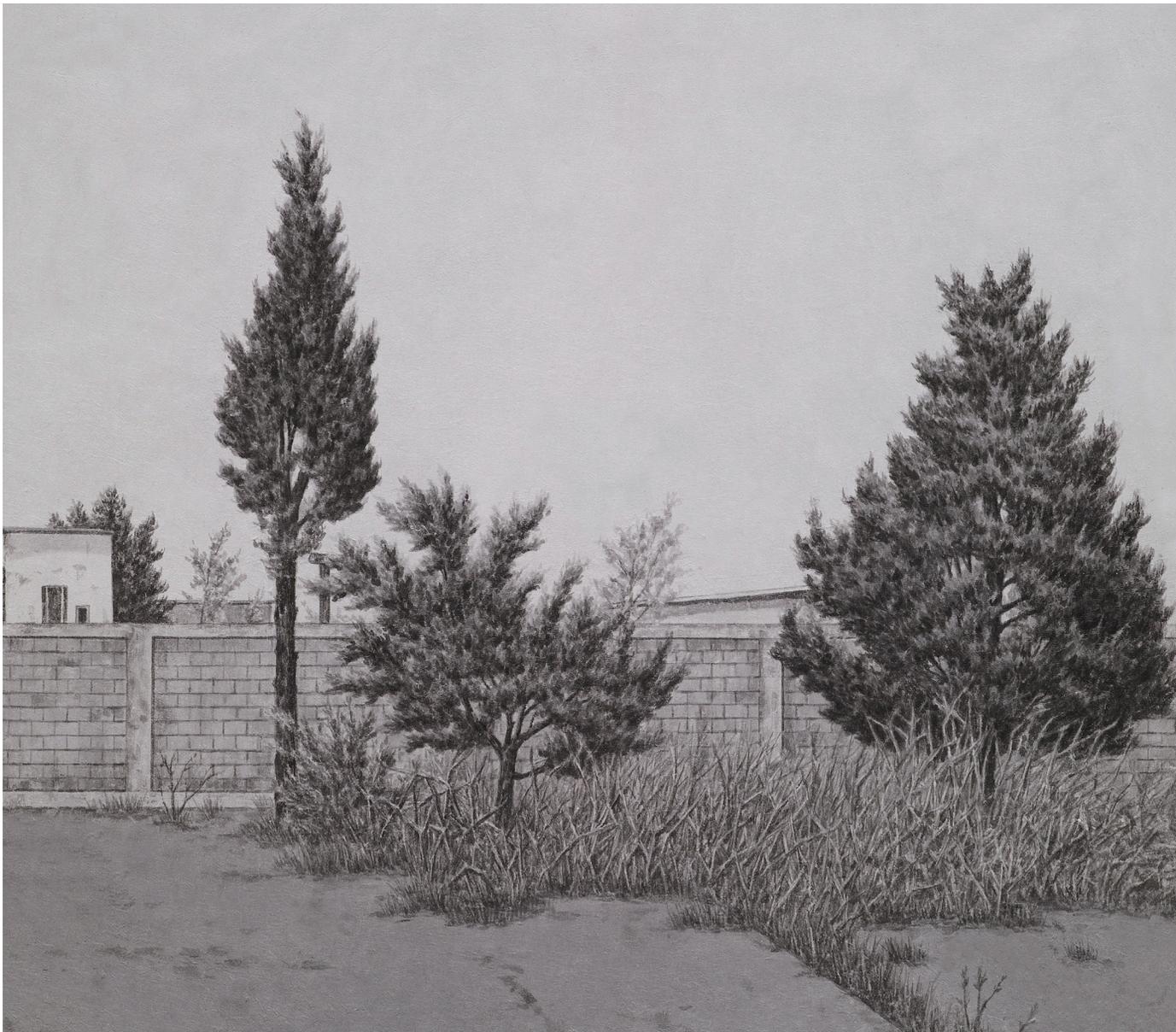
글 김해나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

사진  
서울문화재단



##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마주쳤을 것 같은 평범한 풍경을 먹의 농도만으로 표현해 한 점의 흑백사진 같은 느낌을 주는 이채영 작가의 <사라진 나무>, 빛바랜 장지에 채색화로 상상 속 낙원을 꾸준히 그려온 박수연 작가의 <작은새>를 소개한다.



이채영  
사라진 나무

한지에 먹  
59×45.5cm  
2016  
100만 원



**박수연**

**작은새**

장지에 혼합채색

91×91cm

2015

170만 원

---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http://www.sfac.or.kr/artsgallery)
- ‘바람난 미술’×다음(Daum) 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http://storyfunding.daum.net/partner/sfac#)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展

# 장애인 예술은 없다, 인간의 예술이 있을 뿐

2016년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展의 전시명은 굿모닝 스튜디오  
 2016 <기항지: a Port of Call>다. 기항지는 항해 중인 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항구다.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항해의 과정과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소다. 작가들도 각자 항해하는 도중 머문 잠실창작스튜디오를  
 기항지 삼아 다시 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최종 목적지 없이, 없는 길을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술가의 삶이니 썩 잘 어울리는 타이틀이다.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굿모닝 스튜디오 2016 <기항지: a Port of Call> 전시가 열렸다. 전시 장소를 대형 아파트 단지과 마트 한복판에 있는 커뮤니티 갤러리로 정한 것은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것처럼 느껴졌다. 전시 주체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국내 최초 장애예술가 창작 레지던시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11년부터 현재 8기 입주작가까지 65명의 장애예술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 비평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선 작가들

이번 전시는 잠실창작스튜디오가 공모를 통해 3월에 선발한 12명의 작가가 1년 남짓 작업한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를 기획한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대해 “실력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작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작가가 단순히 머물러 작업만 하는 공간이 아닌 인큐베이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작품 준비 기간 중 8월부터는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딩링 대표), 안소연(미술비평가), 황정인(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으로 이루어진 전문 멘토가 참여해 작품과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다. 신진 작가 위주로 구성된 입주예술가들과 인터뷰해보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로 진행되는 비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절단 장애가 있는 이동엽 작가는 개인전, 단체전, 아트페어에 10회 이상 참여한 중견 작가다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제 작품은 인체와 관련된 작업이에요. 뼈를 세포처럼 연결해 유

기적인 구조를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전에는 비평가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문가분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어요.”

멘토링에 참여한 김인선 대표도 “작가들이 좀 폐쇄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을 통해 작업 전반에 걸쳐 자연스러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았다”면서 “다행히 작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작업을 개선하는데 도움도 되고 외부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생긴 거 같아 좋았다”고 평했다.

### 장애인 예술은 별개의 분야인가?

작품은 풍선아트부터 서양화,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작품을 살펴보니 작가들이 섬세한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대중과 소통을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없다. 장애인 예술은 별개의 분야인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장애인 예술을 구분해 생각하는 것은 신체의 불편함이 작품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한 편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하려 할 때, 그 시선은 비장애인, 이성애자, 중산층에만 국한된 건 아닐까?

‘장애란, 부러진 가지 옆에 새로 핀 꽃이다.’ 얼마 전 필자가 장애 관련 서적에서 발견한 문장이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조금씩) 부러진 가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른다. 발달장애가 있는 작가의 아버지가 아들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장애인 예술을 이해하는 답이 될 수도 있다. “장애는 모자람이 아닌 비장애에 비해 조금 다른 것일 뿐”이며 “비장애인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들은 즐겁게 한다”고 설명했다.

### 한 걸음씩 편견 없는 세상으로

전시를 관람하면서 잠실창작스튜디오 같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 작가는 다른 레지던시도 장애인을 받아 비장애인과 같이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의 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행사 오프닝에서 주철한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직접 축사를 했는데 그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작품을 둘러보고 놀라웠고 좋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로 일할 때 TF팀을 만드는데 원래 뜻(task force) 대신 우리는 ‘Together Forever’라고 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어쩌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조금씩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sup>3</sup>

- 1, 2 커뮤니티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오프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 3 전시에서 선보인 이동엽 작가의 작품.



글 김정욱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함께 살아가는 장터 '상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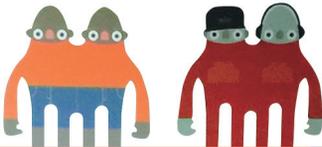
#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공생을 도모하다

혼밥, 혼술, 혼놀, 그야말로 '혼'이 유행하는 요즘 시대에 재래시장에서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청년들이 있다. '함께 살아가는 장터'를 의미하는 상생장은 시장 상인과 손님, 동대문 지역 주민, 청년, 아티스트, 모든 이와의 상생을 꿈꾼다. 2008년 문전성시(門傳成市)\*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비어 있던 상점에 청년들이 들어가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대부분 시장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정부 주도형 사업이었다. 상생장은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나누다

평일 한낮, 경동시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침체된 재래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복잡복잡하고 넓은 시장, 수많은 상점 사이에 비밀의 문이 숨어 있다(힌트는 붉은 벽돌과 과일가게). 좁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법에 걸린 듯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계단을 올라가면 2층 가운데에는 수제맥주협동조합과 카운터가, 오른쪽에는 전시장 겸 메인홀, 왼쪽에는 미트볼·치킨·장어덮밥 등을 파는 푸드코트가 자리 잡고 있다. 3층 옥상은 말 그대로 도심 속 낙원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하얀 플라스틱 박스를 쌓아올리면 테이블이 되고 걸터앉으면 스툴이 된다. 깨끗하게 보수해놓은 화장실도 매력이 넘친다. 할머니방 장롱에서 떼어낸 듯한 자개문짝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쪽 벽면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문구가 써 있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정부 부처나 지자체 후원 로고는 없다. "많은들 그렇게 오해하고 물어 보시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직접 빌려서 창업한 사례는 아직 없을 거예요."

상생장을 운영하는 나영규 대표는 2003년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으로 픽시(fixie: fixed gear bike) 자전거숍, 도심 속 캠핑 콘셉트의 식당 등 젊은 시절부터 여러 분야에서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사업가 출신이다. 소자본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는 “1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자본이 많거나 특허를 갖고 있거나 힘이 있지 않으면 청년 창업시장에서 오래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허탈했다”고 한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던 2016년 2월,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이 공간을 우연히 발견했다. 원래 이곳은 1층 상인들을 위한 창고였다. 점포의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건물주가 창고로 쓰라고 내준 것인데, 상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다. 창고 외에는 해볼 만한 아이템도 없었다던 건물주는 20년 만에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고는 임대를 결정했다. 취지가 좋고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흔쾌히 승낙했다고. 단순한 푸드코트가 아니라 그동안 창업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을 해보겠다는 야심만만한 사업계획이었다.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8월15일 전시공간을 먼저 오픈하고, SNS와 지인들을 통해 청년들을 모아 10월 21일 푸드코트를 열었다.

### 뭐든지 가능한 공간

2층 메인홀의 첫 전시는 'N/S PROJECT' 멤버들의 작품으로 채웠다. N/S PROJECT는 나 대표를 포함해 아티스트 30여 명이 속해 있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2009년 4월 'MAGNET'展을 시작으로 2010년 2월에는 KT&G상상마당, 2013년 9월에는 복합 문화공간 NEMO(네모)에서 전시를 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이 재래시장에 공간을 만들었으니 '상생'이라는 의미로 작품을 내보자며 다시 한 번 뭉쳤다. 상생장에 걸려 있는 작품이나 상품들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한 쪽에는 아트 체어가 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자전거가 걸려 있는 식이다. 회화, 사진, 일러스트, 가구, 조명, 그래피티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방위적인 활동 분야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N/S PROJECT'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매번 다른 주제로 플리마켓(flea market)이 열린다. 11월에는 소규모 결혼식을 했고, 12월 초에는 백패커들이 모여 옥상에 텐트를 치고 캠핑도 했다. 서울문화재단 TA 47명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TA의 날' 행사도 이곳에서 열었다. 앞으로도 뜨개질 강좌, 애견 동호인 정모 등 각종 모임과 행사로 예약이 꽉 차 있다. “공간이 있으니 어떤 콘텐츠든지 기획해서 해볼 수 있어요. 무료로 전시하다가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3

청년, 아티스트와의 '상생 도모'는 확인되었는데, 1층 상인들과도 상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일단 식재료 대부분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다. 상인들은 행사가 있을 때 올라와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장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어울릴 시간이 없단다.

“시장 상인들은 어르신이 많아요. 인사 잘하고 나쁜 모습 보이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보이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거예요.” 그래도 시장 손님들이 화장실이나 먹거리를 찾으면 2층으로 올려 보내주신다고.

“재래시장에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현지인이 많이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젊은 친구들과 시장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복잡한 청과물시장 한 칸,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그려나가는 함께 살아가는 미래. 상생장의 행보에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sup>문전성시</sup>

\* 문전성시(門傳成市):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시작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1 수많은 상점 사이에 숨어있는 상생장 입구.
- 2 2층 메인홀은 전시, 모임, 작업, 소규모 결혼식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이다.
- 3 12월 초에는 백패커들이 모여 옥상에서 캠핑을 했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상생장

뮤지컬 <보디가드>와 <더 언더독>

# 친숙한, 그리고 색다른 두 편의 초연 뮤지컬

‘처음’은 언제나 설렘과 긴장을 동반한다. 새로운 인연을 막 시작하려 할 때 첫인상이 주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그게 전부 아닐지라도. 그래서 처음은 더 조심스럽고 더 떨릴 수밖에 없다.

연일 귀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쏟아지는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의 첫 달, 관객과 처음 만나는 두 편의 뮤지컬과 함께 맞이하는 건 어떨까. 동명의 영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보디가드>와 ‘유기견’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 <더 언더독>을 소개한다.

뮤지컬 <보디가드>는 대표적인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의 친숙한 노래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뮤지컬 <더 언더독>은 색다른 소재로 한국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는다. 관객과 처음 인연을 맺는 두 뮤지컬의 첫인상이 어떻게 남을지, 지금 두 무대 위에는 설렘과 긴장이 가득하다.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만나는 시간

뮤지컬 <보디가드>,

2016. 12. 15~2017. 3. 5, LG아트센터

스토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대 최고의 가수 레이첼 마론과 그녀를 지키는 보디가드 프랭크 파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디가드>가 무대에서 재현된다.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이 출연, 1992년에 개봉한 영화는 스릴러와 로맨스를 결합한 색다른 시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휴스턴이 직접 부른 영화 OST는 4,50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그는 이 앨범으로 제36회 그래미어워즈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포함, 3관왕을 차지한다.

뮤지컬 <보디가드>는 영화 원작자 로렌스 캐소딘이 참여해 6년여간의 기획·개발 단계를 거쳐 탄생했다. 이야기는 영화보다 간결해지고 연출에 속도감을 더했다. 여기에 휴스턴의 노래 15곡을 뮤지컬 스타일로 재해석해 무대를 채운다.

‘빌보드차트 14주 연속 1위’의 신기록을 세운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를 비롯해 <아이 해브 낫싱(I have nothing)> <런 투 유(Run to you)> <그레이티스트 러브 오브 올(Greatest love of all)> 등 귀에 익숙한 명곡이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가수 역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가창력에 중점을 둔 캐스팅이 눈에 띈다. 정상급 뮤지컬 배우로 자리 잡은 정선

1 동명의 영화를 각색한 뮤지컬 <보디가드>는 우리에게 친숙한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듣는 재미를 준다.  
2, 3 <더 언더독>은 ‘버림받은 개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창작 뮤지컬로, 유기견 후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아를 비롯해 가수 '양파'로 더 잘 알려진 이은진,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우승해 '괴물 보컬'이란 수식어를 얻은 손승연이 캐스팅됐다.

보디การ์ด 프랭크 파머는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를 주로 선보이는 영화배우 박성웅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노련한 배우 이종혁이 맡는다.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는 박성웅이 중저음의 목소리를 어떻게 살려낼지 기대를 모은다. 극을 완성하는 조연으로는 최현선, 이율, 김대령, 임기홍, 한동규, 전재현이 나선다.

###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따뜻한 공연 뮤지컬 <더 언더독>

2016. 12. 2~2017. 2. 26,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창작 뮤지컬 <더 언더독>은 '버림받은 개들의 이야기'란 독특한 소재로 제작된 작품이다. SBS <TV동물농장>에서 유기견과 안락사 문제를 다룬 동명의 에피소드를 인상 깊게 본 제작진이 4년 여간의 대본 작업과 제작 기간을 거쳐 첫선을 보인다.

작품은 '진돗개'와 '세퍼트' '마르티스' 등 각자 사연이 있는 반려견들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뒤 유기견 보호소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들의 시선에서 그려낸다. 배우들이 고양이로 완전히 변신하는 뮤지컬 <캣츠>처럼 배우들이 개로 분장하진 않는다. 대신 각 캐릭터가 지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대형 라이선스 작품이 아닌 대학로 초연 뮤지컬이지만 캐스팅 면면도 제법 화려하다. 뮤지컬 <잭더리퍼> <모차르트> <마타하리>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준 김준현이 진돗개 역을 맡았다. 데뷔 14년차 배우 이태성 역시 진돗개 역을 맡아 처음 뮤지컬에 도전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군견으로서 치명적인 장애를 갖게 된 '세퍼트' 역에는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배우 김법래와 뮤지컬 <고래고래> 등에서 매력을 선보인 배우 김보강이 나선다. 배우 정명은, 정재은은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 '모견'(母犬)을 하다 버림받은 '마르티스' 역을 맡는다.

이번 작품은 제작진과 배우가 무대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기견 돕기에 나서 더욱 눈길을 끈다. <더 언더독>은 유료 티켓 1매당 사료 100g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유기견 후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배우 전원이 유기견 후원 팔찌를 직접 구매,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유기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제작진이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일부 스태프와 배우는 직접 유기견을 입양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객들이 반려견을 맡긴 뒤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돌봄 서비스'도 진행한다. '언더독'은 '약자'란 뜻도 있다. 유기견들의 노래는 곧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곡이기도 하다. 박다혜



글 박다혜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CJ E&M, Story P

신년을 여는 젊은 작가들의 다채로운 전시

## 삼청동, 신진 작가에 빠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갤러리들도 열정 넘치는 30~40대 신진 작가들 전시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삼청동 화랑로에 위치한 메이저 갤러리와 미술관이 잇달아 신진 작가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어 관심을 끈다.



### 금호미술관 <무진기행>

가장 먼저 전시를 시작한 곳은 금호미술관이다. 금호미술관은 2월 12일까지 '무진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전통 산수에 국한돼 있던 '이상향'이 동시대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확장하고 있는지 젊은 한국 작가 14명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를 연다.

강성은, 권순영, 기민정, 김민주, 김정욱, 김정향, 서민정, 신하순, 양유연, 이은실, 이진주, 임태규, 조송, 최은혜 등 젊은 한국 작가 14명은 '이상향'이라는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관객에게 전달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옛 우리 선

조들이 곧잘 구상했던 환경적·이성적 낙원이 아니다. 그곳은 한편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한편 웃음을 짓게 되는 등 모든 것이 혼재된 공간이다.

이은실은 은밀하고 불편한 것, 금기시되는 것은 문밖에 두고 고상하고 점잖은 것을 문 안에 배치함으로써 인간적 본능과 욕망을 터부시하는 세태를 꼬집었고 서민정은 주인을 찾아나서는 개의 여행을 통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의 삶을 묘사했다. 양유연은 피난처이자 위로의 대명사인 '달'이 사실은 억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이렇듯 '이상향'이라는 주제의 이면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장르적 경계는 허물어진, 동시대성을 획득한 한국화의 '현재'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선지와 장지, 먹과 전통 안료, 아크릴 채색 등 다양한 재료를 아우르는 작품은 한국화의 확장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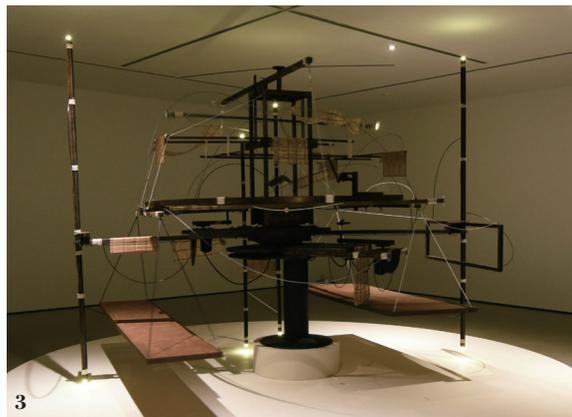
###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 <직관의 풍경>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은 1월 22일까지 젊은 작가들의 직관을 살펴볼 수 있는 <직관의 풍경(Intuitive Landscape)>전을 연다. 이 전시는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1859~1941)이 제안한 인식론의 한 방법인 '직관적 방법'에 대한 시각적 시도다. 베르그송은 실재는 지성이나 개념에 의해 인식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직관만이 실재의 생생한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인간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생성 자체임을 밝히려 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웅현, 노상호, 박경근, 박광수, 안지산, 윤향로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이들 작품에서 포착되는 파편화된 그리고 수집된 이미지들이 고정된 존재나 구조에서 아주 조금씩 미끄러져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관적 방법론'에 기대어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시 기획 의도를 밝혔다.

### 갤러리현대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갤러리현대는 1월 15일까지 박경근, 양정욱, 이슬기 작가의 그룹전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을 진행한다. 현대미술이 대중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일상적 주제, 다양한 매체의 활용 등 확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통은 어려워지는 상황에 주목해 동시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안하는 전시다. 작가, 작품, 관객 간의 소통에 주목한 이 전시는 박경근, 양정욱, 이슬기 작가가 개인이자 작가로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독창



- 1 노상호 <태어나면 모두 눈을 감아야 하는 마을이 있었다>, 60×190cm, 캔버스 천막지드로잉, 2014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
- 2 양유연 <철탑>, 93×66cm, 종이에 아크릴, 2013 @금호미술관.
- 3 양정욱 <그는 선이 긴 유선전화기로 한참을 설명했다>, 350×300×250cm, 나무, 모터, 철, PVC, 실, 2016 @갤러리 현대.
- 4 허수영 <잔디01>, 227×182cm, Oil on canvas, 2016 @학교재갤러리.

적 방식으로 재해석해 설치, 영상,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영화계와 미술계를 넘나들며 주변의 소재를 낯선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박경근은 퍼포먼스와 영상 결합 작품인 <천국의 계단>을 선보이고, 양정욱은 다리를 다치고 회복하는 과정을 담거나 전화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등 일상 속 이야기를 발견하고 가공했다. 이슬기는 일상적인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일반성'이라는 것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전시의 제목인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서서)'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가 1922년에 쓴 동명의 시에서 따왔다. 아름다운 겨울 숲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삶의 책임감을 잊지 않는 화자의 태도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전시 제목처럼 눈 내리는 저녁 숲의 아늑한 정경에 매혹되듯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조형미가 관객을 매료시킨다.

#### 학교재갤러리 <허수영 개인전>

학교재갤러리는 젊은 미술인들 사이 '그림 잘 그리는 작가'로 통

하는 허수영 작가의 개인전을 1월 8일까지 연다. 2013년 인사미술공간 개인전 이후 3년간 그린 신작 회화 13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 덧칠해 시간의 흔적을 풍경화로 담아냈다. 화면에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담기는가 하면 만년설이 쌓이는 산의 풍경이 담겼다. '더 이상 손 댈 수 없을 때까지' 덧칠한 캔버스는 구상보다는 추상에 가깝다. "이 짓거리에는 끝이 없다. 끝없는 붓질의 고행이 그림의 진실"이라는 작가 노트의 말처럼 회화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의 작품에는 묘한 떨림이 있다. <sup>이한빛</sup>

글  
이한빛  
헤럴드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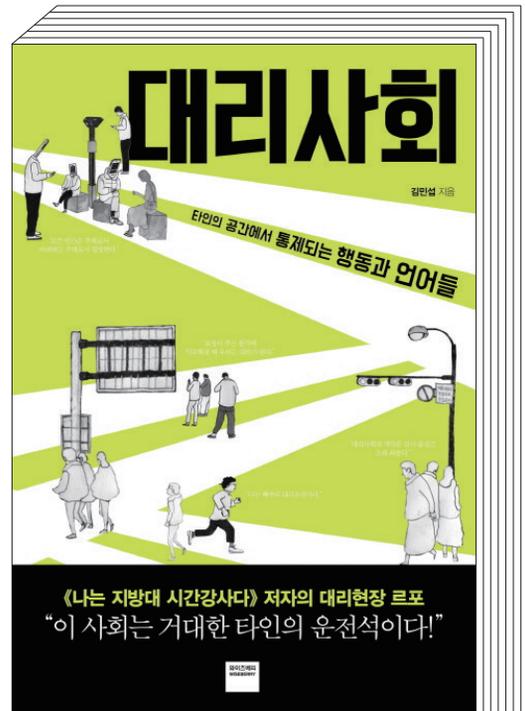
사진 제공  
금호미술관,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 갤러리 현대, 학교재갤러리

책 <지위경쟁사회>와 <대리사회>

# 한국 사회의 문제에 정면으로 마주 서야 할 때

어지러운 시국의 영향일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책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국가 이성 비판><정상인간> 등 제목만 봐도 불신과 절망으로 힘겨워하는 시대 상황이 읽히는 듯하다. 이 중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쓴 <지위경쟁사회>(개마고원)와 대학강사 출신 김민섭 씨의 신작 <대리사회>(와이즈베리)를 소개한다.

새해 벽두부터 웬 우울한 주제냐, 지레 눈살 찌푸리지 마시길. 역사적 순간을 통과 중인 우리에게 '사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만큼 필요한 덕목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나면 해결책의 실마리도 흐릿하게나마 잡히기 시작한다. 희망으로 이어질 좋은 신호다.



## 충족되지 않는 포화점, 낙오자를 만드는 무한 경쟁

〈지위경쟁사회〉, 마강래 지음, 개마고원

〈지위경쟁사회〉는 ‘한국은 풍요로운 사회가 지옥 같은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면서 그 근본 원인으로 ‘지위 경쟁’을 꼽는다. 한 단계라도 더 높은 등위를 지향하는 지위 경쟁이 사람들을 끝없는 불안과 초조 상태로 만들며 행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지위 경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본질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보다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경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저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레드퀸’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소설에서 앨리스는 레드퀸과 함께 숲 속으로 달려가지만 계속 같은 곳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앨리스가 그 이유를 묻자 레드퀸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곳에서는 제자리에 머물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해.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빨리 뛰어야 하지.”

이런 ‘레드퀸 효과’는 긴 노동이 그보다 더 긴 노동을 낳고, 더 많은 소비가 더 많은 소비를 낳는 본질적 이유다. ‘상대적인’ 제자리 걸음을 면하려고 필요 이상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평가 체제에선 이 정도 성취면 충분하지 않으나는 기준, 즉 ‘포화점’이 없다. 남과의 격차는 벌어질수록 좋은 것이 되고, 노력은 끝을 모른다. 전 사회적인 노력의 낭비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뒤처지 않기 위해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것, 별 필요도 없는 공부를 단지 자격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몇 년씩 해야 하는 것, 부모의 재산이 든든할수록 결혼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지위 경쟁의 사회적 양상이다. 지위경쟁사회는 낙오자를 만들어내며 굴러간다. ‘나만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지위 경쟁의 연료가 된다.

사회 발전 초기에는 경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더 많이 일할수록 생산량은 늘어나고, 더 많이 공부할수록 교육 수준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한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의 지위 경쟁은 더 이상 사회적 부를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승자독식이 심해지면서 결국 사회적 이득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진다. 저자는 “경쟁의 정도와 속도를 늦춰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 대리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대리인간’의 사회

〈대리사회〉, 김민섭 지음, 와이즈베리

〈대리사회〉는 2015년 말 ‘309동 1201호’란 필명으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를 펴낸 서른네살 김민섭 씨의 대리 현장 프로 르타주다. 전작을 통해 맥도날드 ‘알바’만도 못한 시간강사 처우 문제를 고발한 김씨는 책 출간 이후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후 대리기사 생활을 시작했고,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 ‘타인을 대리하는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행동하고, 발화하고, 사유하지 못하게 만들며 모두를 자신의 욕망을 대리 수행하는 ‘대리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한국 사회의 속성을 짚어낸다. 이른바 ‘대리사회’다.

여기서 사족 하나. 저자는 문학 공부를 오래한 사람이다. 전공은 국문학. 그중에서도 현대문학이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8년 동안 조교와 시간강사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리사회〉는 상당히 문학적이다. 아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글맛이 대단하다.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국문학 공부는 절대 헛짓이 아니었던 것이다.

저자가 찾아낸 ‘대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리인간’들이 스스로가 ‘대리’ 신세인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그 차의 주인인 것처럼 도로를 질주한다. 하지만 차 안에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또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경로를 이탈할 때마다 지적을 당해야 한다.

저자는 “국가는 순응하는 몸을 가진 국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리고 “순응하지 않는 이들을 감시하고 격리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대리할 ‘대리국민’을 양산해낸다”고 짚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틀을 만들고, 스스로 사유하는 힘이다.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강요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믿으며 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위경쟁사회〉와 〈대리사회〉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는 ‘분노’로 모아진다. “지위 경쟁에 따른 격차가 더 확대 되면 승자에 대한 부러움이 서서히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했고, “대리만족으로 달랠 수 없는 허탈함이 찾아오면 대리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위험 신호가 벌써 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sup>1)</sup>

글  
이지영  
중앙일보 문화부  
출판담당 기자

사진 제공  
개마고원, 와이즈베리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취미를 일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대학 때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했죠. 30대에 들어 다시 기타를 시작해 이번엔 꽤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 일이 너무 바빠서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은 에릭 클랩튼인데 수개월째 스트로크도 시원치 않으니깐요. '뮤지션이 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에 대충 하면서도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안 늘지'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냥 취미일 뿐인데 취미라고 대충 하긴 싫은 거죠. 취미도 일만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 예술적 상담소

기타를 잘 치고 싶다는 고민 상담이,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왜 소설가에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게 오는 것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취미로 삼은 소설가니까요. 그것도 엄청 진지하게.

저는 20대 초반에 음악을 취미로 삼다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30대 후반이 되어서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초반이라고 하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소설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좋아하는 일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하는 일은 결국엔 일일 뿐입니다. 시간을 저당 잡힌 대가로 보상을 받지요. 물론 그 속에는 보람도 있고 자아실현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만, 일은 본질적으로 하기 싫은 겁니다(학생은 당연히 공부가 하기 싫지요).

저는 10여 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그 일을 통해 모든 걸 이루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도 찾고, 보람도 찾고,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벌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설 쓰기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자 성공의 잣대인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행복이 성적 순이 아니듯 행복은 직책 순도 아니고 월급 순도 아니고,



<http://bit.ly/ltAX44>

소설의 판매량 순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사랑받는 개나 고양이를 보세요. 미친 듯이 일해봤자 놀 시간이 없다면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독자님의 고민은 배부른 사람의 투정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입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고민입니다. 기타를 잘치고 싶은데, 엄청 잘하고 싶지만 이게 직업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탓에 나머지 시간에 무얼 하면서 재미를 찾을지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는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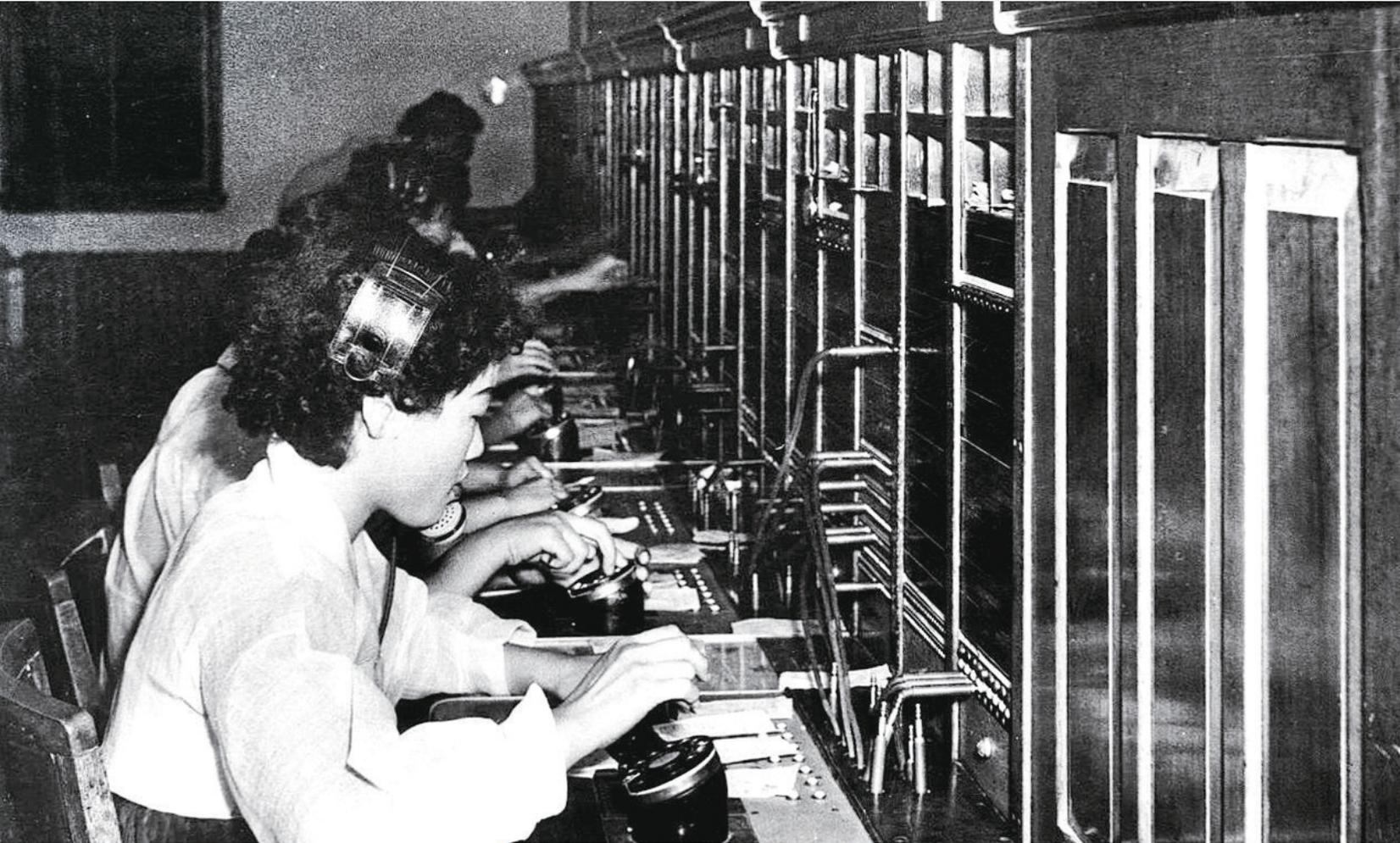
저는 서른아홉 살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무척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20대 때엔 다른 것에 빠져 있었지요. 소설 쓰기가 힘들어질 무렵 우연찮게 피아노 개인 교습을 하는 곳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교습소가 아니라 주로 취미 삼아 배우는 어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실용음악학원에서 강사를 했는데, 뻔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싫어서 독립해 차린 곳이었습니다. 딱 석 달을 배웠는데 그동안 저는 평생 피아노를 통해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대부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노래할 때 칠 수 있는 반주, 작곡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화성을 배우니 혼자서도 대부분의 노래는 피아노로 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신시사이저와 리듬머신을 사서 혼자 재미있게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전에 기타를 배워봐서 압니다. 연주 실력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늘지 않아요. 마음은 저만치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연주를 하고

싶은지, 최종적인 목표가 무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멋있다고 여기는 연주의 뒤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숨겨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지만 이미 늦을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걸 목표로 하다 보면 기가 꺾여서 기타 따위는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도 불쑥 들 겁니다.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굳이 엄청난 테크닉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연주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연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 뮤지션보다 훨씬 유리하지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어려운 곡을 마스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타 코드 세 개면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겁니다. 재미를 쫓아서,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리고 이왕 하는 것이면 퀄리티를 높이세요. 쉽고 단순한 것을 엄청난 퀄리티로 해버린다면 독자님은 어느새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뮤지션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sup>박지</sup>



답변  
서진  
소설가. <웰컴 투 더 언더그라운드>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하트브레이크 호텔> <서른 아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토믹스, 지구를 지키는 소년> 등이 있다.



〈사진 1〉전화교환원.

기술 발전과 함께 사라진 직업들

## 불편하고 느렸어도 그리운 사람의 시절

기술이 발달하며 많은 직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직업은 버스 안내원입니다. 출퇴근 만원 버스에 승객을 밀어 넣으며 “오라이”를 외치던 20대 여성 안내원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2년 승객이 직접 요금을 내는 ‘시민자율버스’가 나오며 버스 안내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자동문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차 벨이 생긴 1989년 말 역사 속의 직업이 됐습니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버스 노선은 352개이고, 운행 버스는 3749대라고 합니다. 버스안내원이라는 직업이 계속 이어졌다면 8000명 정도의 안내원이 활약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던 높은 지대에 생활용수를 물통에 담아 배달하는 물장수도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집에서 이궁이를 사용하던 때는 굴뚝을 청소해주는 직업도 있었고, 컴퓨터로 대형 실사 출력을 하기 전까지는 극장 간판을 손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찰칵찰칵’ 가위질 소리를 내며 동네를 돌아다니던 고물상은 이제는 보기 드문 ‘추억의 직업’이 됐고, 얼음장수, 식자공, 연탄배달원 등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이 더 애뜻했던 시절

〈사진 1〉은 자석식 전화기를 사용하던 1950년대에 활동하던 전



(사진 2) 정사원.

화 교환원의 모습입니다. 자동교환식 전화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환국에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원하는 곳에 연결해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기도 계속 바뀌었는데 사진 속 교환기는 교환원이 다이얼을 돌려 상대방과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교환원이 다이얼을 돌리거나 전화선을 꼽아줘야 했기 때문에 통화 인원이 많이 몰릴 때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유학 온 학생이 시골집 부모님과 통화하려면 한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루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전 세계 어디로든 문자를 보내고,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조금 불편하던 당사가 그림기도 합니다. 사진 속 치마저고리 차림 여성 교환원은 지금은 70~80대쯤 되셨을 것 같네요. 전화교환원은 당시엔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1965년 한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당시 교환원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한 제주 전신전화국 교환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500번(당시 제주 공전식 안내 번호가 500번이었음) 미스 한'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교환원은 "가입 전화 1300대 중 1000대의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고 있다. 관공서는 물론 웬만한 회사, 다방, 가정 등의 번호를 암기하고 있다"며 "길을 가다가도 관공의 전화번호를 외

우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환원에 따르면 하루에 번호 문의가 가장 많은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이며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전후에도 문의가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또 늦은 밤에는 주당들의 희롱 전화에 시달렸다고도 합니다.

#### 계수기로 대체된 '정사원'

은행에서 돈을 세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사원입니다. (사진 2)는 1950년대에 한국은행 정사과 직원들이 돈을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정사원들은 지폐를 권종별로 분류하고, 유통에 적당하지 않은 손상된 지폐를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은행의 정사원 수가 수천 명에 달했지만 요즘은 지폐 계수기로 돈을 세고 수명이 다한 지폐도 기계로 가려내기 때문에 정사원이라는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숙련된 정사원들은 1시간에 6000장의 지폐를 셀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또 손끝의 감촉만으로 위폐를 가려내기도 했습니다.

정사원은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1979년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사원 한 명이 하루에 적게는 1억 원에서 많을 때는 3억 원까지 돈을 썼다고 합니다. 또 한 장이라도 잘못 세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적응력이 느린 사람도 두 달 정도 훈련을 받으면 우수한 정사원이 돼 빠르게 돈을 셀 수 있다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sup>1979년</sup>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영상 작가 라야의 서울 여행기

## 동네를 산책하고 집 안을 탐색하다

영상작가 라야는 잠실과 친해지는 산책을 하는 동안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매료됐다. 어느새 복도와 계단참, 옥상으로 들어섰고 마침내 집 안을 탐색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가정방문' 프로젝트. 골목을 산책하고 집 안을 탐색하는 동안, 그는 서울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 낮선 동네와 친해지는 법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잠실이다. 작은 서울 지도에서는 간혹 잘려나가기도 하는, 하지만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올라간 후로는 서울 지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추세인 곳이다. 잠실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당시 다니던 학교와도 멀었고, 강남권에서 살아본 적도 없을뿐더러 어릴 때 롯데월드엔 단체로 간 일을 제외하면 와본 적도 없는 동네였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도로마다 공사 중이며 그 좁은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위로가 되는 건 한두 해만 살다가 다시 이사를 간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벌써 2011년의 일이 되었고 어찌 다 보니 이곳에서 5년 넘게 (매년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다.

다행히 낮선 동네와 친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혼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산책 습관은 어느 동네에서 지내든지 이어졌고, 잠실의 구석구석 새로운 곳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즐거워졌다. 혼잡한 잠실의 대로변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조용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을 하나씩 들어가보고, 단지 안의 다양한 산책로, 키가 큰 나무들, 복도와 옥상에서 보는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어릴 적 살던 아파트 단지가 떠오르기도 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 이 밖에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장면들을 지니고 있었고, 익숙지 않은 동네의 건물들을 여행하듯이 하나씩 들어가 보고 영역을 넓혀가며 점차 나만의 잠실을 만들어갔다.



### 복도에서 집 안으로, 새로운 서울 여행법

초대받지 않은 건물 산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세 가지, 외관과 내부 복도나 계단참, 그리고 (운이 좋다면) 옥상이다. 잠실의 아파트들을 다니며 그 세 가지만을 보곤 했고,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집 안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졌다. 동시에 내가 모르는 다른 동네들의 풍경 또한 궁금해졌다. RPG 게임에서 캐릭터가 이동하며 지도를 확장하는 것처럼 신천동에서 둔촌동까지 걸으면서, 그 길에 있는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 보며 잠실에 대한 나만의 심리적인 지도를 만들었고 다른 동네와 다른 건물들도 가보고 싶어졌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 내에서 대여섯 번 옮겨 다니며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 살았지만 서울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미미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었다. 행정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지리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강의 북쪽도 남쪽도 아닌 곳, 가장 오래 살았던 장소인 여의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



한국의 '걸 크러시'와 여성주의

# 자립한 '썸 언니'가 보고 싶다

사회와 문화는 서로를 일그러진 거울처럼 쳐다본다. 둘은 서로를 옆에 두고 달려가는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때론 1960년대의 반전 운동과 록 문화처럼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괴력이 더욱 커진다. 2016년 한국 사회에 이와 비슷한 조응이 있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을 기폭제로 점화된 페미니즘의 움직임과 대중문화 전반의 걸 크러시 바람이다. 양쪽 모두 남성 우위의 사회와 문화를 흔들거나 뒤집어보자는 움직임이었다. 만약 양쪽이 적절한 보폭을 맞추며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이인삼각 경주는 아직 매끄럽지 못하다.



걸 크러시(Girl Crush)는 걸이 걸에게 교통사고(크러시)처럼 충돌적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여성 팝스타에게 여성 팬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현상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016년 초부터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다. 먼저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의 샤를리즈 테론이 강인하고 자립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걸 크러시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이어 개그우먼 김숙이 <님과 함께>에서 시원한 소리를 뱉어내며 씩크러시라는 별명을 얻었다. 여자 멤버들로만 이루어진 KBS2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스스로를 ‘걸크러시 예능’이라고 불렀다. 더불어 <언프리티 랩스타> 출신의 여성 래퍼들이 ‘센 언니’ 캐릭터로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 센 언니, ‘걸 크러시’와 페미니즘의 미묘한 엇갈림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 이후 또 다른 곳에서 여성들의 거센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소라넷 폐쇄 운동, 페미니즘 서적 발간 붐, 문화계 성폭력 고발 등 다양한 양상의 운동이 이어져 나왔고, 문화계 전반이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양상까지 생겨났다. 미러링, 창작의 자유, 혐오의 경계 설정 등 수많은 이슈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논쟁의 여지는 많지만, 나는 이 격렬한 에너지가 분명히 새로운 창작의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여성 중심의 새로운 문화운동은 주류 세계의 걸 크러시와 조응할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교집합이 많다. SNS 상에서는 양쪽 모두에 박수를 보내는 여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막상 돌을 가까이 두고 보면, 여전히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닐까 하고 여겨질 정도다.

2016년 네이버 TV 캐스트 인기 영상의 전체 2위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멤버들이 ‘언니쓰’라는 걸그룹을 만들어 데뷔하는 영상이다. 노래는 <Shut Up>으로 남자들에게 입 닥치라고 말하는 시원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들고 춤을 가르친 것은 박진영이다. 그는 2016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식스틴>을 통해 선발하고 데뷔시킨 걸그룹 트와이스는 <Cheer Up>으로 ‘2016 MAMA(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다. 그는 또한 화제의 걸그룹 아이오아이와 만나 <너무너무너무>를 히트시키며 음원 차트를 석권하기도 했다.

### 배후에 있는 아재들로부터 자립한 진짜 ‘걸 크러쉬’

내가 주목하는 점은 지금 대중문화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들의 배후에 30~40대의 남성 대중문화 실력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다. 이들은 영리하게도 여성 팬덤을 장악해야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삼촌 팬’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했고 분명 그 실체도 있다. 과거에 비해 노골적으로 걸그룹에 열광하는 성인 남성 팬이 많아졌다. 하지만 전체 팬덤의 양적인 면에서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외곽이다. 아이돌 그룹이 신곡을 발표한 직후 음원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여초 커뮤니티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녀가 섞여 있는 팬 클럽에서도 삼촌 팬의 화력은 미미하고, 오히려 여고생들이 코치하며 이끄는 경우가 많다. 남성 아이돌 팬덤의 절대 다수는 10대 여성이다. 이들은 그 전쟁에서 치열한 경험을 해왔고, 걸그룹 팬덤으로 이적해와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TV 예능에서 아재-걸그룹의 조합을 계속 보고 있을까? JTBC <아는 형님>은 꾸준히 걸그룹을 등장시키며 시청률 상승에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KBS2의 추석 특집 <헬로프렌즈-친구추가>에서는 ‘금사빠’(금방 사십대가 된 오빠들)인 중년 남성 MC들과 걸그룹 아이돌과의 ‘세대를 넘은 친구 맺기’를 시도했다. 그 밖의 각종 예능에서도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출연자들이 조합을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다.

겉보기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성공 공식이 반영된 것도 같다. 예능에서의 장악력이 뛰어난 40대 남성 예능인들,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포섭할 수 있는 걸그룹 멤버들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런 사실도 있다. 터줏대감 자리를 차지한 중년 남성 출연자들은 젊은 여성 출연자들이 나올 때 몰입도가 훨씬 높고 열심히 한다. 한꺼풀 더 들어가보자. 앞서의 박진영처럼 우리 대중문화계의 제작진과 스태프, 실질적 권력 세계를 그들 ‘아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예능에 등장한 여성 출연자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TV에서 여성이 자립적인 인간으로 놓고 떠드는 모습을 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제시처럼 센 인상의 언니들도 그 점에선 큰 차이가 없다.

진짜 걸크러시,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들의 꿈을 대신해줄 스타를 아직 우리 대중문화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여성 예능인들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만만치 않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을 장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바깥에서 일어난 여성주의의 에너지가 이미 존재하는 걸 팬덤과 결합한다면 어떨까? TV, 영화, 대중음악에서 여성 제작진이 주체가 되어 그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이는 남초 현상에 지친 남성 문화 소비자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자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모든 요일의 카페>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감>,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사진 제공  
JTBC, CJ E&M,  
KBS



오케스트라로부터 배운다

‘조화(Harmonie)’를 상징한 ‘사랑(Phil)’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무대와 객석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 ‘오르케스트라(ὄρχηστρα · orchestra)’에서 유래한다. 무대 위의 배우들과 별개로 극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코로스(χορός · chorus)’는 주로 이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를 하며 노래를 했다고 전해진다.

### 르네상스 시대의 <오르페오>, 근대적 오케스트라의 출현

무대에서는 직접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암시들을 관객들을 향해 전달하는 ‘코로스’의 거점이 바로 ‘오르케스트라’였다. 오늘날 일부 공연장 구조에서 무대와 객석 사이에 객석보다 한 단 정도 낮게 갖춰진 구역인 ‘오케스트라 피트(pit)’는 바로 ‘오르케스트라’의 흔적이다.

그리스 문명의 모방과 변형을 통해 독자적 문화를 형성한 고대 로마 시기에는 공간으로서의 오르케스트라에 일종의 ‘특별석’ 의미가 부여되었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연결 장치로서 기능한 이 공간이 무대와 객석을 구분 짓게 된 것이다. 현재의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피트’를 객석으로 개방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전통에서 유래하는 셈이다.

근대적 의미의 연주 방식으로 ‘오케스트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후기에 해당하는 16세기 말경부터다. ‘문예부흥(文藝復興)’이라는 한자어로 번역되는 르네상스의 기본 취지는 잘 알려진 대로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정신을 되살리는 데 있었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34)가 남긴 오페라 <오르페오>(1607년 초연) 역시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다. <오르페오>는 여건에 따라 임의로 악기를 선택해 연주하던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 극 중 연주되는 악기들을 악보에 상세하게 지정해놓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본격적인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근대 오케스트라의 시작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고대에 대한 동경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녹아 있는 역사

오케스트라와 고대 그리스를 잇는 또 하나의 키워드 ‘아카데미(academy)’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 427~347)의 교육기관 ‘아카데미아(‘Ακαδημία)’에 기원을 둔다.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플라토니카(accademia platonica)’는 메디치 가문 중심의 인문주의자 모임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주로 그리스의 종합적 지식을 부활하려는 취지와 맞닿아 있었다. 음악 연주와 청취 역시 이 모임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차르트(W.A.Mozart, 1756~1791)가 18세기 후반경 빈에서 개최한 자신의 음악회를 ‘아카데미’라고 지칭한 것을 비롯해, 현재에도 공식 명칭에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주요 오케스트라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를 뜻하는 말 중에 ‘조화(Harmonie)’에 대한 ‘사랑(Phil)’, 즉 필하모니(Philharmonie)를 빼놓을 수 없다. 181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음악 애호가 모임(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in Wien’)이 마련한 연주단체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빈 필하모닉(Wiener Philharmoniker)’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유럽의 주요 도시에는 ‘필하모니’라는 명칭이 붙는 오케스트라가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들은 대체로 과거의 왕정사회 관습을 거부하는 자주적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직접 기획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지혜로운 자’라는 호칭 대신, 스스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philos-sophos, 철학자)’로 불리기를 바랐다고 한다. 특정한 지혜를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구의 여정을 멈추지 않은 옛 철학자의 신념이 전해지는 일화다. 같은 방식의 조어 ‘필하모니(phil-harmony)’ 또한 완결된 조화이기보다는 ‘균형 또는 조화를 향한 사랑’을 추구하는 일종의 유기체로서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

### 안정적 질서와 견고한 제도 위의 아름다운 조화

영국 출신의 고대 그리스 연구자 콘퍼드(F.M.Cornford, 1874~1943)는 <천체(天體)의 조화>라는 에세이에서, 고대 그리스의 ‘하르모니아(harmonia)’는 “복잡한 조직 안에서 각 부분이 적절하게 갖춘 질서”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한다. 음악 용어로서의 ‘하모니’는 주로 ‘화성(和聲)’과 동의어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더욱 상위 개념의 조화까지 포괄하는 표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흔히 서구의 근대 오케스트라는 일상적 제도나 조직의 모범 사례로 거론되곤 한다.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음악 작품의 연주를 통해 주목받는 듯 보이지만, 그에 앞서 필요한 안정적 질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견고한 제도가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마의 절차가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의 정신성을 향한 동경과 서구 시민사회로의 역동적 전개가 내재한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그 자체로 조화에 대한 사랑의 오랜 기록이기도 하다. 소란한 해를 마감하며 맞이하는 새해 아침, 새삼 되새겨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한다. <sup>1)</sup>

글  
장윤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근대 일본의 서양음악  
수용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강의>(교유서가,  
2016)를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용도’ 강박을 버리면 드러나는 공간의 가능성

## 방치된 노들섬이 더 아름답다

한강을 따라 차를 타고 가면 크고 작은 섬들이 눈길을 잡는다.

하나하나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풍류객들이 찾던 봉우리에서 채석장으로, 다시 정수장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한 선유도, 너무나 척박한 벌판이라 ‘너나 가져라’라는 뜻이었던 여의도는 거대한 빌딩 숲으로 변했고, 조선시대 조선업 마을이 있던 밤섬은 여의도를 만들기 위해 폭파되어 사라졌다가 한강의 퇴적작용에 의해 철새들의 섬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섬이 있다. 바로 노들섬이다. 원래 이름이 중지도(中之島)인 이곳은, 1995년에 일본식 이름을 한글로 바꾸면서 노들섬이 되었다. ‘노들’은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라는 뜻으로, 용산 건너편 지금의 노량진 부근을 이르는 말이었다. 지금은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에 둘러싸여 마치 중세 성곽 같은 느낌이지만, 원래는 용산구 이촌동 쪽과 연결된 거대한 백사장의 작은 모래언덕이었다. 갈수기에는 여의도보다 더 큰 규모의 모래

밭이 갈대로 가득했고, 갈대숲 위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워 용산8경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다.

### 서울 시민이 사랑했던 ‘노들’의 개발과 퇴화

하지만 아름다운 작은 모래언덕의 운명은 1917년 일제가 이곳을 지나는 인도교를 세우면서부터 바뀌게 된다. 1900년 한강 최초의 다리인 한강철교를 세우면서, 차량과 사람이 건너는 다리도 필요하게 되었고, 공사가 용이한 모래언덕에 석축을 둘러 인공 섬을 만들고, 그 위에 한강 북단 이촌동 쪽과 남단 노량진을 잇는 두 개의 다리를 이어 인도교(현 한강대교)를 세웠다. 일제는 인공 섬을 ‘물 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뜻의 ‘중지도’라 불렀는데, 이때부터 하나의 섬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던 시절에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노들섬은 자연스럽게 유원지로 사랑받게 되었다. 지금도 동그렇게 둘러선 당시 석축의 일부가 섬 북쪽에 남아 있다.

광복 후 노들섬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사회적 공간으로 사랑받는다. 주변 모래밭은 ‘한강 백사장’이라 불리면서, 여름에는 피서지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하는가 하면, 대통령 선거 유세장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표어로 유명한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1894~1956) 선생의 선거 유세를 보기 위해 1956년 5월 3일 30만이 백사장에 운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8년부터 시작된 한강개발계획을 위해 모래를 퍼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백사장은 사라졌다. 그나마 남아 있던 모래밭은 1973년 콘크리트 옹벽을 둘러 노들섬을 매립 확장하면서 모두 사라져버렸다. 한강과 분리된 노들섬은, 개발에 참여한 민간 기업에 넘겨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거의 사라졌다.

노들섬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 것은, 2005년 서울시가 섬을 매입하면서 이곳에 거대한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하지만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의 작품은 설계비 문제로 무효가 됐고, 다시 오페라하우스의 입지와 교통 문제, 환경 파괴 등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복합예술공간으로 변경된 건축가 박승홍(DMP)의 두 번째 안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농작물을 키우는 ‘노들텃밭’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시민공모와 국제현상설계공모전을 통해 ‘노들마을’이 들어선다고 한다. ‘실내·외 공연장과 공원, 상점가 그리고 생태교육시설 등을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해 하나의 작은 마을’을 만들 것이라고.

### 자본이나 가치로 환원되는 ‘용도’에 대한 강박

노들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마치 용도에 안달이 난 것 같다. 1917년 일제에 의해 다리의 교각으로 시작해 1968년부터는 한강 개발을 위한 채석장으로, 1973년부터 ‘대지’로, 2005년부터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마을까지... 시대마다 가치관은 변했지만 노들섬을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들에게 노들섬은 그저 방치된 공간일 뿐이다. 문화예술이든 마을이든, 개발이든 보존이든, 특정한 기능이나 자본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용도’는 이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광기(狂氣)의 역사(Madness and Civilization)>(1961)에 의하면, 이성적인 잣대로 재단될 수 없는 ‘광기’가 사회에서 추방되기 시작한 것은 17~18세기부터라고 한다. 근대국가의 탄생과 함께, 중세까지만 해도 그나마대로 경외의 대상이던 ‘미치광이’들이 모두 수용소로 보내지게 된다. 심지어 부랑자, 거지, 실업자 등도 닥치는 대로 대낮에 수용소로 보내졌다. 정신이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근대국가의 규범에 맞지 않는 존재는 모두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삼청교육대가 그런 곳 중 하나였다. 이제 그 ‘재단’을 자본이 하고 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장 상품성이 있는 용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종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의 문제 이전에, 특정한 용도나 기능을 부여하지 못해 안달인 우리의 병적 태도다. 이미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정한 용도나 기능은 이미 자본으로 환원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7~18세기 유럽 국가나 삼청교육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치된 노들섬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가타리(Félix Guattari, 1930~1992)는 <양티오디푸스(Anti-Oedipus)>(1977)에서 모든 것을 특정한 기능과 용도로 ‘포획’하려는 자본주의의 병적인 특성을 지적하며, 이를 벗어나려는 ‘탈주선(a line of flight)’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아직 자본주의에 의해 포획되지 않고 특별한 용도나 기능으로 재단되지 않은 것에서만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능, 새로운 감각의 탄생이 가능하다. 노들섬은 절대 방치되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정권의 가치관에 의문을 던지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었다. 특정한 용도나 기능을 강요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가능성을 남겨뒀으면 좋겠다. 나에게 ‘방치’된 노들섬은 그가능성만으로도 아름답다.

- 1 텃밭과 마을이 들어선 지금의 노들섬 모습 (촬영: 이소푸디자인).
- 2 노들섬은 특별한 용도나 기능으로 재단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곳이다.



글  
조한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며  
한디자인(HAHN  
Design) 대표로  
건축·철학·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간·공간’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 공간의  
기억·기억의 공간:  
건축가 조한의  
서울탐구>(돌베개,  
2013)가 있다.

사진  
조한, 밴드오브노들  
www.bandofnodeul.com



## 이 골든 시스는 인 총

안소랑 작

**등장인물** 학생, 형사

**무대** 교실 책상, 교실 의자

어두운 교실 안에 총을 든 학생이 서있다.

**학생** (관객석을 바라보며) 주말에 교실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우리 반에서 자살을 했대요. 학교에서는 묻으려고 조용히 끝내려 한다는데, 여튼 그때 형사 하나가 수사를 하려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총을 두고 간 모양이에요. 총은 제 자리 위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한테 기회가 왔단 뜻이에요. 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년 한 명이 있었어요, 제 1등 자릴 빼앗은 년이죠. 이번 중간고사, 그년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요, 나한테 검정 볼펜 하나를 빌려갔는데 보니까 그게 저한테 있던 마지막 볼펜이었던 거예요. 덕분에 전 시험을 제대로 못 봤어요. 답이란 답은 죄다 밀려 쓰고, 서술형 답 맞춤법을 틀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전 그년한테 복수할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했죠. 이런

기회가 생길 줄도 모르구요.

그때 누군가가 교실 문을 열쇠로 여는 소리가 들린다.

학생은 침착하게 자신이 숨어 있을 곳을 향해 숨어 어둠 속에 파묻힌다.

교실 문을 연 것은 형사였다. 형사는 열쇠로 머리를 긁적이며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형사** 에이 시발, 건망증도 이런 건망증이 없지. 총을 두고 다니는 형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어제는 뭐 기집애가 죽지를 았나. 분명 여긴 터가 안 좋은 거야, 터가.

형사는 자신이 있던 책상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책상 위는 깨끗하게 비어 있다.

**형사** 어? 뭐야, 분명 내가 총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두고 갔는데! (관객석을 바라보며) 저기요, 여기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럼 내 총, 내 총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내가 어제 총 없어진 거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아? 아주 나타내기만 해봐, 내가 돈이란 돈은 다 물려서 깡똥으로 시원하게 보내버릴... (학생이 숨어 있는 곳을 발견하며) 왁!

**학생** (저를 찾은 형사를 발견하며) 왁!

**형사** 왁!

**학생** 왁!

**형사** 왁!

**학생** 왁!

**형사** 학생 왜 거기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어!

**학생** 아저씨야말로 왜 이 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형사** 나야, 내... 학생, 그나저나 여기 책상 위에 있던 총 본 적 없어?

**학생** 모, 몰라요.

**형사** 모를 리가 있나, 새까만 거! 총 말이야, 총! 뽕뽕! 총!

**학생** (들고 있던 총을 뒤로 숨기며)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찾아요! 아저씨가 잃어버린 걸.

**형사**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거 뒤에 숨긴 건 뭐야.

**학생** 뒤에 숨긴 거 없어요.

**형사** 숨긴 게 없기는, 빨리 내놔 봐.

**학생**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예요!

**형사** (학생에게 다가가며) 성추행은 무슨! 만지지도 않았고!

빨리 뒤에 좀 봐, 학생!

**학생** (허겁지겁 형사에게 총을 겨눈다) 저리 가라니까!

**형사** 악! 니가 가진 거 맞잖아! 그거 위험한 거야. 진짜 탄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얼른 총 내려놔.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 그래, 말로 하자! 말로!

**학생** 저 이 기회 놓치면 진짜 등신이에요.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번만요!

**형사** 학생! 사람 쓰면 살인이야! 그리고 우리 형사들도 총 같은 거 함부로 못 쓰게 되어 있어!

**학생** 거짓말 마요! 영화에서 보면 막 뽕뽕 싸 죽이고 그러잖아요!

**형사** 그건 영화잖아, 등신애! 얼른 총 내려놔, 아저씨 진짜 화낼 거야! 나 진짜 화내!

**학생** 아! 알았어요. (형사와 자신의 거리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럼 총 여기, 여기에 둘게요. 여기에 둘 테니까 건드리지 마요.

**형사** 알았다고! 알았다고!

학생은 조심스레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내려둔다. 학생이 총을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형사도 안도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형사** 아이고, 식겁했네. 야, 총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멋있게 탕, 탕하고 쏠 수 있는 게 아니야.

**학생**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형사** 왜, 왜! 누구 쏘려고, 뭘 누구 쏘려고 중요한 기회 타령이야!

**학생**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걔 죽이면 저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형사**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뭔데.

**학생** 1등이요.

**형사** 뭐? 1등? 겨우 1등 자리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와, 요즘 애들 무섭네.

**학생** 겨우 1등 자리 아니예요. 제가 여태까지 줄곧 지켜오던 자리라고요!

**형사** 그냥 다시 그 1등 자리가 뭔가를 뺏으면 될 거 아냐, 꼭 사람까지 죽여야겠냐?

**학생** 네, 죽여야 해요. 저는 제 물건, 제자리 건드리는 애들은 가만 안 뒤요.

**형사** 그럼 총은 더더욱 못 빌려준다. 아니 애초에 빌려주지도 못해.

**학생** 아저씨, 아저씨는 제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모르잖아요!

**형사** 그게 필사적이라고? 그건 필사적인 게 아니라 충동적인 거야! 너 충동적인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는 아냐?

**학생** 충동적인 거 아니예요, 그리고 개는 죽어도 상관없는 애라고요.

**형사** 세상엔 죽어도 될 만한 이유를 가진 애는 없어! 그리고 네가 뭔데 죽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냐, 네가 판사라도 되냐?

**학생** 아저씨!

**형사** 내가 원래 이런 도덕적인 말 쓰는 거 싫어하는데, 너한테는 써도 되겠다. 학생! 생명은 소중한 거야!

**학생** 아저씨가 뭘 안다고 저한테 충고예요.

**형사** 아йт, 시끄러워. 철없는 고삐리 애길 처음부터 들어주는 게 아닌데.

형사가 앉았던 자리에서 엉덩이를 털며 일어서자 학생이 바닥에 두었던 총을 짹짹 채긴다. 그러자 형사가 학생의 팔을 꼭 부여잡으며 총을 빼앗으려 한다.

**형사** 너 그거 이리 안 내놔?

**학생** 안 돼요! 못 쥐요! 아저씨가 제 책상 위에 두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 거예요!

**형사** 그건 내 총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거지, 너한테 버린 게 아니거든!

**학생** 아이 씨, 시간 없어요! 이제 안소랑 올 때 다 뒀단 말이에요!

그때 필사적으로 총을 받으려 하던 형사가 멈춰 선다. 형사가 학생을 바라보자 학생도 형사를 바라본다.

**형사** 안소랑이라니.

**학생** 뭐가요.

**형사** 지금 너가 안소랑이라면서.

**학생** 네, 왜요?

**형사** 그,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죽인다 하고 떠든 애 이름이 안소랑이야?

**학생** 네. 제가 죽인다 하고 떠든 애가 안소랑이에요.

형사가 말없이 침묵을 유지하다 학생을 바라보며 말한다.

**형사** 개 죽었어, 여기 교실에서.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자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사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서울연극센터 <뉴스테이지 (NEWStage)> 선정작

서울연극센터 유망 연출가 지원  
**이연주** NEWStage NEWStage N  
 EW **전화벨이 울린다** Stage NE  
 Stage **2017.1.5.~1.8.** NEW **김정**  
 Sta **동승아트센터** geN **손님들**  
 EWSt **소극장** a **2017.1.12.~1.15.**  
 geNEWSt **동승아트센터** age N  
 EW **이은서** Stage N **소극장** EW  
 S **아임언아티스트** tage **신명민**  
**2017.1.14.~1.18.** NE **우리별** WS  
**만리동** tage **2017.1.19.~1.22.** N  
**예술인주택** E **동승아트센터** W  
 ge NEWStage **소극장**

신진 연출가의 작품 개발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4편이 무대에 오른다. 이연주 작·연출의 <전화벨이 울린다>를 시작으로 고연옥 작, 김정 연출의 <손님들>, 이은서 공동창작·연출의 <아임언아티스트>, 시바 유키오 작, 신명민 연출의 <우리별>까지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5일(목)~2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아임언아티스트) 오후 3시

**장소** 동승아트센터 동승소극장

**관람료** 1만~3만 원

**문의** e-stc.or.kr 02-743-9336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서울예술치유허브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 제휴협력실
- 문화자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 축제팀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
- 교육지원센터
- 정책연구팀
- 기타 문화행사 추천

www.sfac.or.kr

MON	TUE	WED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m 체험클래식 &lt;악기체험&gt;(~1.16)</li> </ul>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신진국악실험무대 &lt;별난 소리판&gt;(~1.21)</li> <li>● 수어지교2-한림 &lt;八絃歌(팔현가)&gt;</li> <li>● 성균소극장 &lt;일곱색깔 우리 춤&gt;(~1.31)</li> <li>● 인문학 강의 &lt;아도르노 쉽게 읽기&gt;</li> </ul>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기너스 프로젝트 김이송 전시 &lt;산장데이트-두근두근 레이싱&gt;</li> <li>●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1.14)</li> <li>● 연극 &lt;메디아 온 미디어&gt;(~2.26)</li> <li>● 2017년 한글일일달력전(~1.31)</li> </ul>
<p>9</p>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기너스 프로젝트 이은경, 맹선아, 박선미 &lt;아메떼&gt;(~1.14)</li> <li>● 비기너스 프로젝트 사영인 전시 &lt;형광빛과 희망&gt;(~1.26)</li> <li>● 2017 오페라 마티네 &lt;박쥐&gt;</li> <li>● 뮤지컬 &lt;레드북&gt;(~1.22)</li> <li>● 연극 &lt;사천의 착한 살인&gt;(~1.11)</li> </ul>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창극단 &lt;미녀와 야수&gt;(~1.22)</li> <li>● 세종문화회관 새해국악한마당 &lt;생생지락&gt;</li> </ul>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li> </ul>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강의 &lt;아도르노 쉽게 읽기&gt;</li> <li>● 뮤지컬 &lt;청춘 18대1&gt;(~2.5)</li> <li>●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lt;소장작품 기획전&gt;</li> <li>● 서울영상광고제</li> </ul>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스테이지 기획 공연 &lt;ROBOT&gt;(~1.22)</li> <li>● 국립극단 &lt;조씨고아, 복수의 씨앗&gt;(~2.12)</li> <li>● 뮤지컬 &lt;영웅&gt;(~2.26)</li> <li>● 문묘일무 한국 유래 900주년기념 임학선댄스위 &lt;문·무·꿈·춤&gt;(~1.19)</li> </ul>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KO 한국창작음악제</li> </ul>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그림자들&gt;(~1.29)</li> <li>● 연극 &lt;도토리&gt;(~2.5)</li> </ul>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lt;스페이스업&gt;(~1.26)</li> </ul>
<p>30</p>	<p>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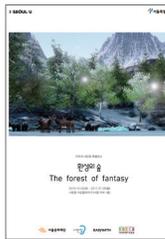
THU	FRI	SAT	SUN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호주 &lt;Sonomatter&gt;(~1.7)</li> <li>● 뉴스테이지 이연주 &lt;전화벨이 울린다&gt;(~1.8)</li> <li>● 구혜선 개인전 &lt;순수, 공포 그리고 자유&gt;</li> </ul>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영혜중공업 전시 &lt;세 개의 쉬운 비디오 자습서로 보는 삶&gt;(~3.12)</li> <li>● 연극 &lt;변신&gt;(~1.15)</li> <li>● &lt;북콘서트&gt; 다류피디 김현수와 작가 김연수의 북토크</li> <li>● 연희음악극 &lt;하늘로 간 청춘팔&gt;(~1.22)</li> <li>● 연극 &lt;사서들&gt;(~1.22)</li> </ul>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청년모험가회사-경성특사&gt;(~2.5)</li> <li>● 연극 &lt;좋은이웃&gt;(~1.20)</li> </ul>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7천만의 한국인들&gt;</li> <li>● 활력콘서트, 군기유적전시</li> <li>● 정책전시 &lt;꿈꾸는, 따뜻한 서울&gt;(~1.31)</li> <li>● 특별전시 &lt;환상의 숲&gt;(~1.30)</li> <li>● 전시 &lt;ART Beyond ART&gt;(~1.31)</li> <li>● 김희영 개인전 &lt;부재한 공간: 무, I&gt;(~1.10)</li> <li>● 국립고궁박물관 &lt;경건, 조선 궁궐을 짓다&gt;(~2.19)</li> <li>● 국립극장 마당놀이 &lt;놀보가 온다&gt;(~1.29)</li> </ul>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테이지 김정 &lt;손님들&gt;(~1.15)</li> <li>● 비기너스 프로젝트 &lt;아줌마 퍼포먼스&gt;</li> <li>● 연극 &lt;갈매기&gt;(~2.5)</li> </ul>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소라(노리꽃) 장구 프로젝트III &lt;비가 올 징조&gt;(~1.14)</li> <li>●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 II- 가족음악극 &lt;십이야&gt;(~1.30)</li> <li>● 마포아트센터 &lt;2017 신년음악회&gt;</li> <li>● 타고 코리언 드림</li> </ul>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청 4주년 개관행사 &lt;시민청 귀 빠진날&gt;</li> <li>● 뉴스테이지 이은서 공동창작 &lt;아임언아티스트&gt;(~1.18)</li> <li>● 겨울방학특집 &lt;악기아놀자&gt;(~1.15)</li> <li>● 경의선책거리 &lt;옛이야기 함께 읽기&gt;</li> <li>● 연극 &lt;리처드 3세&gt;</li> </ul>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이럴때 이리음악-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1.22)</li> <li>● 뮤지컬 &lt;미드나잇&gt;(~2.26)</li> </ul>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테이지 신명민 &lt;우리별&gt;(~1.22)</li> <li>● 빈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li> <li>●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li> </ul>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국악극 &lt;만만파파 옹피리&gt;(~1.29)</li> <li>● 클래식 &lt;아르쿠스 슈텐츠 사이클 I&gt;(~1.21)</li> </ul>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희집단: 갱 &lt;우주물동우주&gt;(~1.22)</li> <li>● 패밀리뮤지컬 &lt;이상한 나라의 앨리스&gt;(~1.26)</li> <li>● &lt;무진기행&gt; 전시 연계 '뮤지엄 키즈팝콘'(~2.4)</li> <li>● 공감의 시작 2017</li> </ul>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기너스 프로젝트 4422 전시 &lt;헬조선 만들기&gt;(~1.20)</li> <li>● 레 플루트 앙상블 창단 연주회</li> </ul>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산여린이공연 &lt;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gt;(~1.29)</li> </ul>	<p>27</p>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날(음력 1.1)</li> </ul>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남식&amp;댄스트루다 &lt;시계태엽 오렌지&gt;</li> <li>● 에뜨왈 스트링 콰르텟 정기연주회</li> </ul>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청 설명절 기념행사(~1.30)</li> </ul>

**01**  
SUN

**전시 <7천만의 한국인들>**

시민청과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가 함께 하는 영상 인터뷰 프로젝트 <7천만의 한국인들 (70mk, people in Seoul)>은 '서울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아 전시한다.

**일시** ~2017년 2월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담배라미디아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미디어 체험전시 <환상의 숲>**

추운 겨울 신비로운 숲 속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일시** ~1월 30일(월)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B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정책전시 <꿈꾸는, 따뜻한 서울>**

관광과 복지, 일자리에 관련된 서울 정책 관련 전시다. 서울의 옛 사진과 이야기 음성, 참여 레고판으로 서울을 이해하고 풀어낸다.

**일시** ~2월 28일(화)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시 <영건(營建), 조선 궁궐을 짓다>**

조선시대 궁궐 영건의 대역사를 살펴보는 특별전시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다. '영건일감' '서궐도안' '장역기철' 등의 유물과 건축 연장, 재현품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 영건 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1월 12일(목)에는 전시 연계 특별강연도 마련됐다.

**일시** ~2월 19일(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조선의 궁궐실  
**관람료** 무료  
**문의** gogung.go.kr 02-3701-7643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력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7331



**국립극장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에 이어 선보이는 세 번째 '온다' 시리즈. <홍보전>을 바탕으로 한 마당놀이를 특유의 풍자와 더불어 70명의 배우와 무용수, 연주자들의 화려한 춤사위와 신명 나는 음악으로 잔치판을 완성한다.

**일시** ~1월 29일(일) 화·수·주말·공휴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김희영 개인전 <부재한 공간: ㅁ, ㅣ>**

서교예술실험센터 2016 유망예술지원(시각분야) 선정작가 김희영의 개인전이 열린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적 풍경의 무의식적인 가치관을 네모난 창의 프레임으로 나타냈다. 사각 형태의 창이 지나는 외부 풍경의 패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시** ~1월 10일(화)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02**  
MON

**1m체험클래식 <악기체험>**

1m체험클래식은 클래식 악기의 선율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클래식 큐레이터의 해설이 함께하며 1월에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트럼본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2일(월)~16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1m 클래식 아트홀  
**관람료** 전석 1만5천 원  
**문의** 1mclassic.com 02-743-5001



**03**  
TUE



**2016 신진국악실험무대 <별난 소리판>**

우리의 전통 성악으로 자신의 노래를 직접 만들고 부르는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다. 판소리, 민요, 가야금 병창, 정가 등 우리 소리를 고민하고 실험과 질문으로 풀어냈다. 장서윤, 김효정, 이아름, 방초롱, 여성룡의 무대가 준비됐으며 마지막 공연인 21일(토)에는 갈라콘서트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3일(화)~21일(토)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4시  
**장소** 서촌공간 서로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spaceseo.com 02-730-2502

**연극 <에이미 GO>**

고순심이라는 한 여성을 통해 인간의 독립과 의존, 성격, 인간과 인간의 관계 등의 문제 속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한다. 무거운 이야기를 다루지만 유쾌하고 편안하게 극을 이끌어내며 코미디를 표방한다. 임빛나 극작, 진용성 연출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 최종 공연 <차세대 열전 2016> 작품이다.

**일시** 1월 3일(화) 오후 8시, 4일(수) 오후 6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무료  
**문의** koreapac.kr 02-3668-0007

**04**  
WED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1월 겨울방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 <제13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제25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본선에 진출한 우수작 6편과 공식 초청작 6편의 국내 아동극으로 구성됐다.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전문가를 위한 아동청소년 연극 아트마켓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4일(수)~14일(토) \*공연별 시간 다름  
**장소** 종로 아이들극장, 아트원씨어터 3관, 드림아트센터 3관 등 대학로 일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assitejkorea.org 02-745-5862~3

**김이송 <산장메이트-두근두근 레이스>**

지난 7월 <악셀만 밟으면 위험해>로 데뷔한 단체인 김이송의 전시와 토론회가 열린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최초예술지원 선정자.

**일시** 1월 4일(수)~7일(토) 오후 6시~9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연극 <미디어 온 미디어>**

한남대로158의 개관 첫 공연으로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미디어 온 미디어>가 무대에 오른다. 현란한 이미지로 넘쳐나는 이 연극은 유리피데스 원작인 미디어의 비극을 미디어인 TV속으로 가져왔다. 이아손과 미디어의 격투는 토크쇼로, 유모의 한탄스러운 보고는 시사다큐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극을 이끌 어간다.

**일시** 1월 4일(수)~2월 2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설연휴: 평일 오후 3시, 주말 공연 없음  
**장소** 한남대로 158  
**관람료** 전석 1만5천 원  
**문의** facebook.com/bee2kee 02-766-1774

**2017년 한글일일달력전**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캘리그래피 전시다. 과학적 소리언어이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인 한글에 캘리그래피 디자인을 더했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각 계절 소리를 달력 형식으로 표현한다.

**일시** 1월 4일(수)~31일(화) 오전 11시  
**장소**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  
**관람료** 무료  
**문의** mapo.go.kr 02-324-6200

**05**  
THU

**안효주 <Sonomatter>**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효주의 사운드 퍼포먼스와 전시다.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관계를 ‘흙’이라는 매체로 표현했다. 흙의 미생물 신호를 소리로 변환시키며 전압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일시** 1월 5일(목)~7일(토) 오전 11시~오후 10시  
\*공연 5일(목) 오후 7시, 6일(금) 오후 8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676-4333



**연희음악극 <하늘로 간 청춘팔>**

춘향, 심청, 팔죽가 한 무대에 등장한다. 전래동화, 연극, 전통연희에 콘서트까지 더한 플레이그룹 댄스의 가족극으로 16세 사춘기 소녀들의 고민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우수신작 선정작.

**일시** 1월 6일(금)~22일(일) 평일 오후 2시, 금 오후 8시, 토 오후 2·5시, 일 오후 5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원  
**문의** koreapac.kr 02-516-3963



**이연주 <전화벨이 울린다>-**

**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신진 연출가의 작품 개발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연극센터 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으로 전작에서 집단의 폭력성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했던 이연주가 극작, 연출했다. 콜센터 상담원의 일상을 통해 친절한 서비스의 허상, 가면 속 민낯과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괴물성을 들여다본다.

**일시** 1월 5일(목)~8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원  
**문의** e-stc.or.kr 02-743-9336



**극단창세 <변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극단창세의 무대로 만날 수 있다. 28회 거창국제연극제에서 작품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어느 날 주인공 그레고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 벌레로 변신하게 되면서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이다. 8일(일)에는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연출 신동일.

**일시** 1월 6일(금)~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원  
**문의** dsartcenter.co.kr 02-766-3390

**06**  
FRI

**장영혜중공업**

**<세 개의 쉬운 비디오 자습서로 보는 삶>**

한국의 장영혜와 미국의 막 보주가 대표로 있는 웹아티스트 그룹인 장영혜중공업은 음악에 텍스트를 붙인 애니메이션을 26개의 언어로 작업한다. 아트선재센터의 1층에서 3층까지 선보이는 이번 비디오 설치 작업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디오 자습서’처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주는 텍스트와 음악이 결합된 애니메이션 작업이다. 아티스트 토크와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도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6일(금)~3월 12일(일) 오후 12시~7시  
\*월요일 휴관, 아티스트토크 2월 9일(목) 오후 4시

**장소** 아트선재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artsonje.org 02-733-8949

사업 구상에 대해,  
먼저 먹어, 네 삼촌에게 이거 줘라.  
**위하여!**

**07**  
SAT

**뮤지컬 <청년모험가회사-경성특사>**

애거사 크리스티의 원작 <비밀결사>가 경성 시대를 배경으로 다시 태어났다. 추리와 모험에 스윙재즈의 음악을 더한 경성 속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2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우수신작 선정작.

**일시** 1월 7일(토)~2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월·화요일, 설 연휴 공연 없음, 27일(금) 3·7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관람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문의** koreapac.kr 02-516-3963



**08**  
SUN



**2017 이럴때 이런음악-**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 14주년을 맞이하는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의 겨울방학 맛이 ‘겨울이야기’ 시리즈다. 이번 공연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 현악4중주와 함께하는 왈츠, 소나타, 애니메이션, 드라마 OST,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음악을 특별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8일(일)·21일(토) 오후 5시, 22일(일) 오후 2시  
**장소** 세종M씨어터, 세종 체임버홀, 예술의전당BK챔버홀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hoonent.com 02-332-5545

**10**  
TUE



**2017 오페라 마티네 <박쥐>**

오페라를 처음 관람하거나 다소 어렵게 느끼는 관객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주요 오페라의 대표 아리아를 선보인다. 올해는 <박쥐>를 시작으로 <아이다> <마탄의 사수> <피카로의 결혼> 등이 준비돼 있으며 세종체임버홀에서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다.

**일시** 1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세종체임버홀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이윤경, 맹선아, 박선미 <야메떼!>**

“하지마”라는 뜻의 일본어인 ‘야메떼’는 일반적으로 거절이라는 의사 표현보다 신음소리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여성 다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길 강요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일상 속 만연한 여성혐오를 전시장 안으로 불러왔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소액다컴 선정자.

**일시** 1월 10일(화)~14일(토)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11**  
WED



**사영인 <형광밤과 희망>**

매일 지나가는 낮과 밤, 밤의 경험을 비문명-아만의 시간으로, 낮의 경험을 문명-희망의 순간으로 풀어낸 전사이다. 대조되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풍경을 미디어 설치로 표현한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소액다컴 선정자.

**일시** 1월 10일(화)~26일(목)  
**장소** 성북동 17717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국립창극단 어린이창극 <미녀와 야수>**

국립창극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창극 <미녀와 야수>를 준비했다. <미녀와 야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시작 이후 처음 선보이는 어린이창극이다. 기존의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연출 임도완, 극본 장성희.

**일시** 1월 11일(수)~22일(일)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후 2시  
**장소** 국립극장 KB하늘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2017 세종문화회관 새해국악한마당 <생생지락>**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세종문화회관의 국악 공연이다. 세종대왕의 ‘생생지락’을 주제로 하며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청소년국악단의 연주에 멀티악기플레이어, 판소리, 무용, 연희, 노래가 함께한다.

**일시** 1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12**  
THU



**김정 <손님들>-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지난 2000년에 일어난 부모 토막 살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이미 부서져버린 한 어린 인간이 태어나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이다. 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중 유일하게 증견작가 고연옥의 희곡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연출 김정.

**일시** 1월 12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원  
**문의** e-stc.or.kr 02-743-9336

**공연 <아줌마 퍼포먼스>**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 아내이기 전에 아름다운 딸, 아줌마이기 전에 한 소녀였던 아티스트들이 모여 계획한 공연이다. 경력이 단절되어 꿈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엄마, 여성, 아줌마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소액다کم 선정작.

**일시** 1월 12일(목) 시간 미정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 II-가족음악극 <십이야>**

서울시극단의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다. 낭만희극 <십이야>의 감동을 다양한 음악과 노래, 안무로 만날 수 있다. 영어 자막과 스테디 가이드도 제공된다.

**일시** 1월 13일(금)~30일(월) 화~목 오전 11시,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5시, 일 오후 2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세종M씨어터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000



**연극 <갈매기>**

2015년 게릴라극장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갈매기>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유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았다. 연희단거리패 대표 김소희의 연출 데뷔작.

**일시** 1월 12일(목)~2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30일(월) 오후 3시 \*월요일·28일(수) 공연 없음  
**장소** 게릴라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stt1986.com 02-763-1268



**세계가 사랑한 아티스트 <2017 신년음악회>**

마포문화재단 10주년을 기념해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가 마포 아트홀맥에서 열린다. 세계가 사랑한 아티스트를 주제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김다미, 테너 김종일과 소프라노 정시영이 무대에 오른다. 지휘에는 장윤성이 나선다.

**일시** 1월 13일(금) 오후 8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mapoartcenter.or.kr 1544-1555



**어른을 위한 동화 <파란별 이야기>**

세상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는 파란별 작은 섬의 웅녀 이야기다. 예술집단 순이 무대에 올리는 첫 번째 연극으로 자본과 문명에 의해 오염되고 지배되어가는 인간과 세상을 말한다.

**일시** 1월 12일(목)~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오후 3·7시, 일 오후 4시  
**장소**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8263-9400



**시민청 4주년 개관행사 <시민청 귀췌진 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인 서울특별시 시민청이 2017년 개관 4주년을 맞이한다.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가 펼치는 공연과 캘리그라피 체험, 미디어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만나보자.

**일시** 1월 14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김소라(노리꽃) 장구 프로젝트III <비가 올 징조>**

'장구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공연을 이어온 김소라(노리꽃)의 세 번째 장구 프로젝트 시리즈다. 장구를 다른 장르의 매체와 접목하고 새로운 장단 구성을 통해 전통 악기의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일시** 1월 13일(금) 오후 8시, 14일(토) 오후 3·7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676-4333



**<아임인아티스트>-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만리동 예술인주택에서 살게 된 연출가가 연출보다는 육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예술가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다큐멘터리 연극을 표방하는 이 작품은 실제로 만리동 예술인주택을 무대로 활용해 생활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시** 1월 14일(토)~18일(수) 오후 3시  
**장소** 만리동 예술인주택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e-stc.or.kr 02-743-9336

**15**  
SUN

**4442 <헬조선 만들기>**

공공연한 개념이 된 '헬조선'이 단지 하나의 관념,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다. 헬조선을 희화화해 우리가 헬조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소액다کم 선정자.

**일시** 1월 15일(일)~20일(금)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16**  
MON

**2017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2017년 초·중·고등학교 공교육과 연계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가교사(TA) 모집을 알리는 설명회가 열린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울예술치유허브 등의 공간별 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단체·개인 모집을 포함해,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통합 설명회다.

**일시** 1월 16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  
**참가비** 무료  
**문의** sfac.or.kr 02-758-2000

**17**  
TUE

**이강소 <도시의 목소리>**

도시의 시각적인 소음으로 취급 당해온 싸구려 광고 전단지, 포스터, 스티커 등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서사적 상상을 그려낸 전시다. 광고 전단으로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원하는 단어, 문장을 모아 유의미한 글로 만들어 전시한다. 비기너스 프로젝트 소액다کم 선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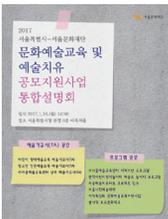
**일시** 1월 17일(화)~20일(금)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0246

**18**  
WED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고선웅이 직접 각색, 연출해 2015년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은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명동예술극장에 다시 오른다. 조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조삭의 아들 '고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식까지 희생하는 비운의 필부 '정영'의 이야기다. 원작이 가진 비극에 희극적 요소를 담아냈다.

**일시** 1월 18일(수)~2월 1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요일·27일(금)·28일(토) 공연 없음, 1월 25일(수) 오후 3시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문의** ntck.or.kr 1644-2003



**뮤지컬 <영웅>**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갓 서른 살 안중근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인다. 뉴욕 브로드웨이와 중국 하얼빈에서 큰 호응을 얻은 작품으로 안재욱, 정성화, 양준모, 이지훈, 리사, 박정아, 정재은 등이 출연한다.

**일시** 1월 18일(수)~2월 26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5·8시, 토 오후 3·7시, 일 오후 2시30분·6시 30분 \*설 연휴 공연시간 다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sejongpac.or.kr 02-2250-5941

**18**  
TUE

**셀스테이지 기획 공연 <ROBOT>**

2017 셀스테이지 기획 프로그램으로 인간 무용수와 로봇이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는 블랑카리 컴퍼니의 공연을 준비했다. 기계와 과학의 영향력이 높아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의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담아낸 공연이다. 관객과의 대화가 18일(수) 공연 종료 후 진행되며 두 번의 워크숍도 마련됐다.

**일시** 1월 18일(수)~22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  
\*금요일 공연 없음  
**장소** 청계천로40 셀스테이지  
**관람료** 무료  
**문의** k-cel.kr 02-2651-2515





**임학선댄스위 <문·무·꿈·춤>**

문묘일무 콘텐츠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된 임학선댄스위의 한국창작춤 <스승 공자>와 <영웅 이순신>이 한 무대에 오른다. 문묘일무 한국 유래 900주년을 맞아 완성된 작품으로 인간 사랑과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두 위인을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한다.

**일시** 1월 18일(수)~1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koreapac.kr 02-2263-4680



**연극 <도토리>**

오태석이 극작, 연출한 극단 목화의 연극이다. 누명을 쓰고 출소한 두 지적장애인 일ल्ली와 삼렬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다.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일시** 1월 24일(화)~2월 5일(목)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mokwha.co.kr 02-745-3966~7



**신명민 <우리별>-뉴스테이지(NEWStage) 선정작**

2010년 일본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한 시바유키오의 <우리별>을 각색한 작품이다. 언어의 묘미를 살린 대사 와 랩으로 이루어진 이 연극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다른 일상을 위트 있게 포착하면서도 특유의 리듬감을 극대화했다. 각색·연출 신명민.

**일시** 1월 19일(목)~2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3~7시, 일 오후 4시  
**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송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e-stc.or.kr 02-743-9336



**무용 <스페이스쉽>**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연예술분야 <차세대 열전 2016>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르는 허윤경 안무의 무용 공연이다. 우리 자신과 공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공간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공간이 지닌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일시** 1월 25일(수)~26일(목) 오후 8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70-8107-4597



**연희집단: 갱 <우주울동우주>**

전통연희, 미술, 작곡, 의상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연희집단: 갱'의 작품이다. 현재를 혼돈의 세계로 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파동'의 패턴으로 보여준다.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일시** 1월 20일(금) 오후 8시, 21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2676-4333



**남산어린이공연**

남산골한옥마을이 남산골겨울방학 특별기획으로 어린이 공연을 준비했다. 1월 극단 북주머니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를 시작으로 2월에는 극단 로.기.나라 <파란 토끼 룰루의 모험>과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종이 아빠>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1월 26일(목)~2월 11일(토)  
 \*1월 공연 평일 오후 4시, 주말 오후 2~4시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00



**연극 <그림자들>**

시미즈 쿠니오 원작의 <분장실>이 극단 아츠플레이본의 <그림자들>로 무대에 오른다. 사회초년생, 상사, 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군상의 그림자들을 극속에 담아낸 블랙코미디다. 각색·연출 박지연.

**일시** 1월 24일(화)~29일(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2017

서울특별시-서울문화재단

#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일시 2017.1.16.(월) 14:00

장소 서울특별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

## 예술가교사(TA) 공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가교사(TA)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가교사(TA)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 예술가교사(TA)

## 프로그램 공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지역기반 프로그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놀이터 프로그램  
서울예술치유허브 프로젝트 입주  
서울시민예술대학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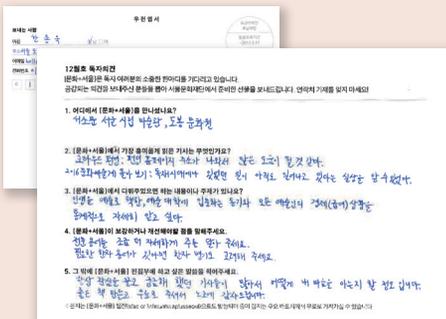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http://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독자엽서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서소문 서울시립미술관, 도봉문화원  
 2. 클라우드펀딩: 펀딩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016 문화예술계 돌아보기: 독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실상을 알 수 있었다.  
 3. 인생을 예술로 택한, 예술대학에 입문하는 동기와 모든 예술인의 경제(급여) 상황을 통계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다.  
 4. 전문 용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주를 달아주세요. 필요한 한자 용어가 있다면 한자 병기도 고려해주세요.  
 5. 항상 관심을 끌고 궁금해하던 기사가 많아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지 할 정도입니다. 좋은 책 만들고 무료로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중욱 님

##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대표님에게 신청한 지 정확히 2주 만인 지난 12월 13일, '4인용 식탁'의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만나 맘껏 먹고 마시며 노래했고, 함께 공감했습니다.

선걸, 이준걸, 황기성

## 편집 후기

리즈시절 가장 즐겨 들던 가수가 생을 마감했다. 그의 노래 제목 'Last Christmas'처럼 크리스마스에 말이 싸가 된다 했던가.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불러야겠다. "괜찮아, 잘 될거야..."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캐비닛 안에 캐비닛  
진실 안에 진실  
새해다. 닥치면 겪는다.  
안현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제 사진이 걸린 지면에 글을 써 보긴 '생전' 처음입니다... 라고 썼다가 '졸업 후'로 고쳐 봅니다. 나이를 또 먹어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올해는 무언가 '생전 처음' 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준걸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대리

마지막입니다.  
후련함은 머리에 스쳐가고,  
후회는 마음에 남아있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2017년은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민정 |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작,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의

지원 총괄 02-3290-7096

연극 02-743-9333

무용 02-304-9100

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02-2676-4300

시각예술 02-333-0246

문학 02-324-4600

예술축제 02-3290-7166

# 2017

## 서울문화재단

# 예술지원사업 공모안내

사업설명회

**2016.12.26.(월) 시민청** <sup>1차 공모</sup>

**2017.1.24.(화) 시민청** <sup>2차 공모</sup>

### 1차 공모

신청접수 : 2017.1.2.(월)~1.13.(금)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은 1.20.(금)까지)

예술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축제 | 예술축제지원

예술가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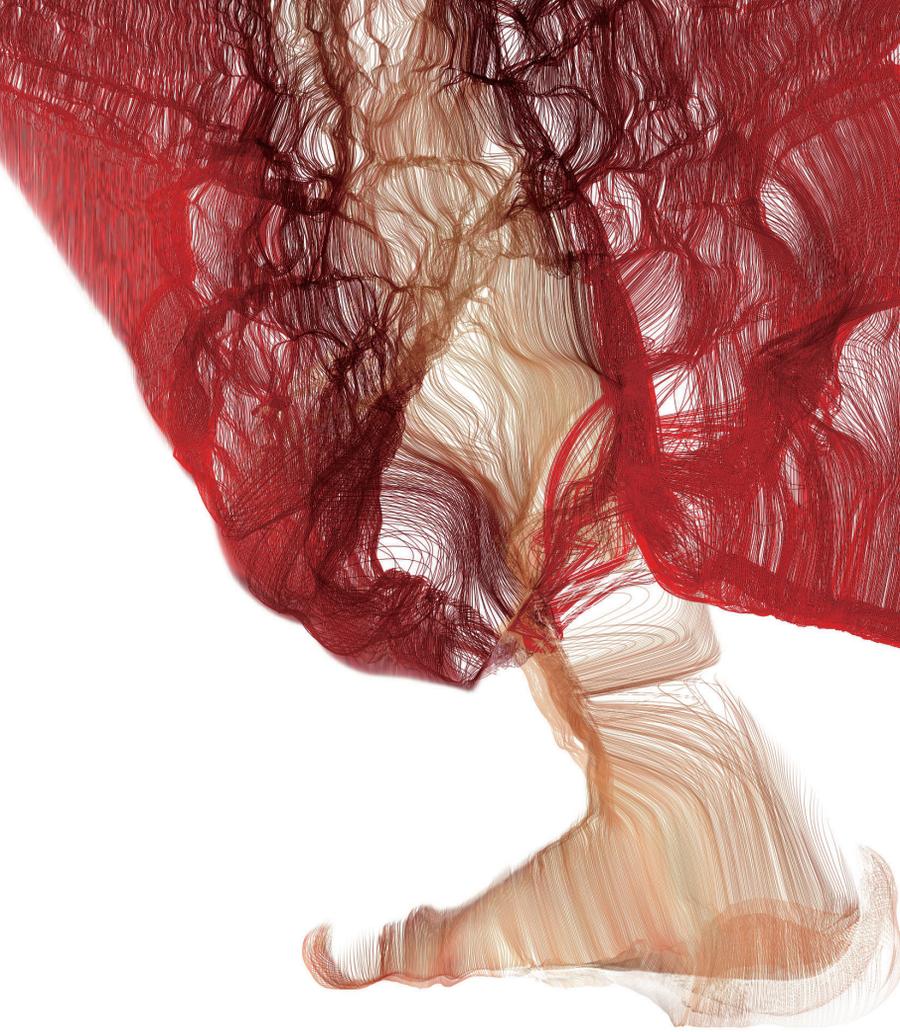
### 2차 공모

신청접수 : 2017.1.25(수)~2.10.(금)

예술작품 | 예술작품지원

신진예술가 | 유망예술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http://www.sfac.or.kr)에서 확인해주세요.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남  여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엽서

요금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3.17

동대문우체국

제 40182호

인화+0  
신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계전로 517(4층)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1 3 0 8 2



문의사항은 이메일 gomgom@sfac.or.kr 또는 전화 02-3290-7066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 1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간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본문을 뽑아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기계를 잊지 마세요!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sfac.or.kr/munhwaplusseoul)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1



## 테마 토크

정치의 거울, 풍자의 봄

## 사람과 사람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 진실 혹은 대담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 쟁점 1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논쟁

## 쟁점 2

2017년부터 주요 예매처 6곳 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반영 시작

## 화제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성황리 개최

## 공간 1

잠실창작스튜디오 8기 입주작가展

## 공간 2

함께 살아가는 장터 '상생장'

## 1월의 서울문화매뉴얼